

COVER STORY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컬렉션
'수선되는 밤×정글'

COLUMN

'행사'나 '사업'보다 수준 높은 예술작품

Cultural Issue

기후위기 시대 공연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나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컬렉션

2024 9월 Vol.393



©국립현대무용단 '정글'

FSW 2024
FESTIVAL SHIWOL

BPAM
Busan Int'l Performing Arts Market

부산문화회관
경성대학교
문화골목

2024. 10. 4. Fri — 10. 8. T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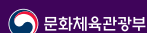
부산국제 공연예술마켓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주최/주관



후원/협력



#공연을_Pick_하다

2024년 부산 도슨트 과정 6기 회원모집

장소 부산도슨트협회,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 2층 세미나실

회비 50만원 (총12강)

계좌번호: 국민은행 672101-04-413486 부산도슨트협회

문의 회장 박덕남 010-6207-0767



교육목적

21세기 문화를 풍요롭게 할 '도슨트'라는 전문가를 양성시킴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미술, 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가교역할과 미술관, 갤러리, 각종 아트페어에 작품해설 및 안내를 하여 대중의 보다 쉬운 이해와 접근을 돕고자 한다. 그리하여 작가와 관람 대중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전과 도슨트협회 회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6기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회	월/일	교육내용	강사
1	10/21 (월)	개강식 (30분)	박덕남 부산도슨트협회회장
		예술과 사랑 그리고 도슨트-로딩조각작품 중심으로	정연은 부산시립미술관도슨트, 평화방송 "화요명화산책" 진행
2	10/28 (월)	시대의 거울, 사실주의 비밀결사대 라파엘전파 화가들	우승우 전)계명대외래교수
3	11/4 (월)	작가론과 작품감상(20세기후반~동시대까지)	백경원 전)동아대학교대학원외래교수
4	11/11 (월)	마음으로 읽는 세계미술사 이야기	구경미 부경대 교육학박사수료, 구경미갤러리(주) 대표
5	11/18 (월)	I 색으로 해석하는 미술	배선주 한솔미술공예협회 이사장
6	11/25 (월)	II 색채 심리와 색채 미학적 관점	배선주 한솔미술공예협회 이사장
7	12/2 (월)	도슨트를 위한 아트스피치	박수빈 에이전시 할 대표
8	12/9 (월)	생존, 생활, 그리고 예술의 미학	안장혁 동의대학교 교수
9	12/16 (월)	예술 속의 '인사이드 아웃'	안장혁 동의대학교 교수
10	12/23 (월)	동시대 미술-감상에서 컬렉팅까지	구본호 예술학박사, 전)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관장
11	12/30 (월)	예술과 미술: 어디까지가 미술인가?(작품감상법과 이해)	김미애 한국교원대학교 외래교수, 교육박물관학예사
12	1/6 (월)	예술로서의 사진과 컨템포러리아트, 그리고 디지털아트로의 발전 (1시간30분)	민경숙 아트커뮤니케이션 르비드 대표
		종강식 (30분)	박덕남 블루아트페어 위원장

※ 월요일 저녁 6시 30분 ~ 8시 30분 (2시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교육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은 상반기, 하반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 상반기반, 하반기반(총 24강) 실무강의 10시간 이수 및 정회원 가입 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W.A.
Mozart
2024
마티네 콘서트
Mozart

연주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해설

손지현

프로그램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피리

코지 판 투테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지휘 정인혁

소프라노 박원진

소프라노 손주연

바리톤 이광근

첼로 홍승아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K-POP시리즈

소향 *With* 가을석양 열린 음악회

싱글
소향



소프라노 | 왕기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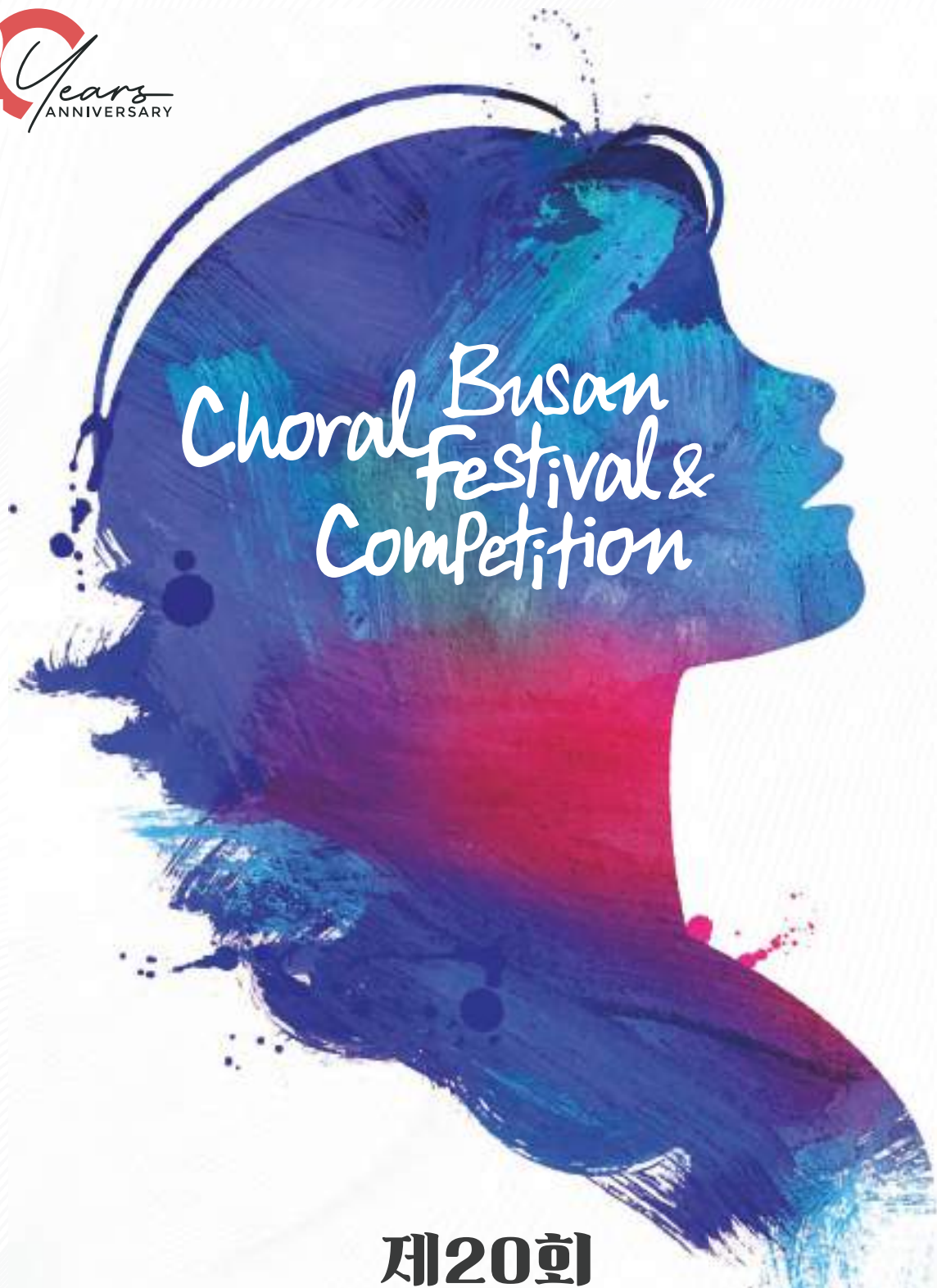
테너 | 최원감

지휘
홍희철

2024. 9. 21. | 토 | 오후 5시
음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0 Years ANNIVERSARY



제20회 2024 부산국제합창제 OCTOBER 23 -26

BEXCO AUDITORIUM | BUSAN CINEMA CENTER | BUSAN CULTURAL CENTER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KCI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대표방송 KNN
협찬 대동대학교 SARATOGA 삼정 경동건설 S&P 선보공업 양산병원 명인제약 월드엔젤피스 해운대 암소갈비집

문의 070-4172-0680 | 010-5593-0534 | [2024년도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입니다.



제20회 2024 부산국제합창제

10월 23일 ~ 26일 세계 22개 팀 700여 명이 참가하여 대합창 경연이 펼쳐집니다.

OPENING CONCERT

10.23 (수) 19:30
벡스코 오디토리움

라포엠 | 월드엔젤피스 | 부산.원주.나주 시립합창단
5개국 연합 합창단 | 부산 콘서트 오케스트라

interpark 티켓 VIP석 5만원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GRAND CONCERT

10.24 (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원주시립합창단, 나주시립합창단
특별 초청 공연

interpark 티켓 전석 1만원



SPECIAL CONCERT

10.25 (금) 19: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4개국 연합 합창단 특별 공연

전석 초대 공연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KCI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

협찬 대동대학교 SARATOGA 삼정 경동건설 우비 선보공업 양산병원 명인제약 월드엔젤피스 해운대 임스칼비집

문의 070-4172-0680 | 010-5593-0534 | 「2024년도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Chet Baker
첵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Rachmaninoff

2024.10.19(토)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www.bscc.or.kr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4. 9월호 Vol.393



Column 10 '행사'나 '사업'보다 수준 높은 예술작품

세계의 콘서트홀 ⑦ 12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공연장들

Cultural Issue 16 기후위기 시대 공연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나

Cover Story 22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 부산
'수선되는 밤 × 정글'

Preview 26

문화가 화제 34 2024 제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Review 38

Program Guide 40

New Book 56



'행사'나 '사업'보다 수준 높은 예술작품

• 최찬열 춤비평가



공공극장이란 국민이나 시민이 낸 세금, 곧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극장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 공공극장은 국가나 시, 혹은 기초 지자체가 국민이나 시민을 대리해 관리하고 운영하는 극장인 셈이다. 국가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립극장과 다소 다른 형태이다. 그런데 항도 부산에는 이런 공공극장이 많다. 그중 부산문화회관이 시에 속하다면, 해운대문화회관이나 금정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등은 기초 지자체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 극장이 가진 성격은 다소 구별된다. 말하자면 부산문화회관은 장르별 전속 예술 단체와 여기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상임 단원이 있어, 공연예술을 직접 제작해 올리고, 기획하고, 생산하지만, 그 외 극장은 그렇지 않다. 부산문화회관과 달리 후자에 속하는 극장들은 직접 공연을 생산할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한 대관 업무를 중심으로 외부 공연이나 이벤트성 행사를 유통하고 소통하는 역할에 거친다, 흔히 전자를 제작극장, 곧 프로듀싱 시어터(producing theatre)라 부르고, 후자를 프리젠틱 시어터(presenting theatre)라고 칭한다. 부산문화회관은 수도권에 있는 극장, 곧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 경기아트센터 등과 유사한 형태의 극장으로서 부산 공연예술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듀싱 시어터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다른 제작극장과 같이 무용, 연극, 오케스트라, 합창 등 전속 예술 단체가 속해 있고, 이들에 의해 다채로운 공연예술이 자체적으로 생산된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에 있는 대부분 공공극장은 다소간 차이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성격이 혼합된 형태의

극장이다. 가령 부산문화회관에서도 대관 심사를 통해 다수의 외부 공연을 수용하는 실정이고, 을숙도문화회관이나 금정문화회관 등에서도 미약하지만 기획이나 제작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기초 지자체에 속하는 공공극장에서도 공연물을 직접 생산하고, 더불어 이를 위한 필수 인원이라도 고용한다면, 이는 예술 환경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활성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아가 여기에 전속 예술 단체가 생겨나는 것도 고무적이다. 이는 한국의 많은 예술가가 공연을 위해 대관료를 내거나 공적 지원금에 매달려야만 하는 열악한 현실을 타개할 근본 해결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생태계 변화가 함께 많은 극장이 부분적일지언정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역량을 늘려가는 추세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말이다. 어쨌든 한국과 부산의 공공극장은 프리젠틱 시어터와 프로듀싱 시어터가 혼합된 상태에서 후자의 성격이 점점 더 강해지는 추세이고, 비록 모든 극장이 제작극장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극장이 많을수록 더 좋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이들 극장에 속하는 전속 예술 단체의 성격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극장의 역할과 기능이 다변화하는 이즈음, 여기에 속하는 단체도 이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리라.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콘서트홀이 개관하는 등 부산 지역의 예술 생태계에 닥쳐올 큰 변화를 함께 염두에 두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제작극장인 부산문화회관도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전국 국공립무용단들을 실례로 들어 더 말해보자. 먼저 부산시립무용단과 경기도무용단이 닮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두 무용단은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큰 변화 없이 관행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립무용단은 최근 극장에 속하는 자체 기획팀 혹은 제작팀의 역할을 늘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예술감독의 권한은 줄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곧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은 예전처럼 무용단의 공연 계획과 운영, 행정 등에서 전권을 가지지 못하고, 이들 권한 중 상당 부분을 기획팀이나 제작팀을 중심으로 짜진 시스템에 이양한 상태이다. 서울시무용단은 부산시립무용단과 경기도무용단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띠지만, 최근 창단한 서울시티발레단에는 전속 예술감독이나 단원이 없고, 제작팀이나 기획팀만 갖추고 있다. 이는 국립정동극장과 흡사한 구조다. 그리고 예술감독은 있지만 전속 단원이 없이,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립현대무용단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요컨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어떤 무용단에는 예술감독이 없거나, 있더라도 권한이 축소되어 있고, 또 전속 단원이 있거나 없는 상태이다. 말하자면 기획이나 제작 중심으로 잘 짜진 시스템만 갖추고 있다면, 예술감독이든 단원이든, 그때그때 적합하고 실력 있는 인물을 적제적소에 뽑아 서면 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어쨌든 모든 무용단에서 제작팀이나 기획팀의 역할과 권한은 강화하는 추세이고, 그와 대조적으로 예술감독의 예술적, 행정적 권한은 약화하는 것이다. 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기획자나 PD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다. 기실 지난 시기 무용단 운영에서 한 명의 예술감독에 지나치

게 과도한 역할이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적인 일과 단의 운영과 관리 감독 등, 모든 행정적 권한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큰 극장에서 한 시간 분량의 대형 작품을 올릴만한 실력을 갖춘 대형 안무가가 희소한 한국적 실정에서, 또한 예술적 능력과 정무 감각을 동시에 겸비한 인물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이었다. 그리고 이는 관객들이 극장에서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만나기 어려운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변화하고 진화한 제작 시스템의 핵심 역량이 좋은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데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이다. 곧 어떤 제작극장이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해 보인다. 요컨대 각각의 지역 극장은 각기 다른 형태의 제작극장이어야 하고, 각기 다른 제작극장에 속하는 무용단 또한, 다른 지역의 무용단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여기서 동시대성과 로컬리티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다. 이를테면 시의적절한 ‘행사’나 ‘사업’도 좋지만 수준 높은 공연 좀 보고 싶다는 제언이고, 부산문화회관은 동시대성과 로컬의 감각을 담은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극장이면 더할 나위 없겠다. 시민과 예술가가 주인이고 주체인 극장이면서, 다른 공공극장과 구별되는 지역적 차별성이 있는 공연을 생산하는 데 유용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춘 공공 제작극장이면 좋겠다는 말이다. 명실공히 전문성과 높은 예술적 안목을 가진 기획자나 PD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창작의 산실이길 요망한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공연장들 축제대극장 *Grosse Festspielhaus* 을 중심으로

•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7월 20일경부터 5주 동안인 8월 말일까지 해마다 여름이면, 모차르트의 고향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는 음악 축제가 열린다. 역사나 규모, 그리고 축제의 내용과 구성 면에서 이견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클래식 음악 축제이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베를린 필하모닉을 대표로 한 세계 유수의 교향악단 5~6개가 축제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2024년의 경우 그리고리 소콜로프, 예프게니 키신, 안드라스 쉬프, 다닐 트리포노프 등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리사이틀 무대에서 기량을 뽐낸다. 오페라의 경우 모차르트의 작품을 중심으로 6~7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데 자크 오펜바흐의 '호프만이야기', 프로코피예프의 '깁블러' 등이 올해의 화제작이다. 그리고 역시 메인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지오반니'.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지휘를 맡으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클래식 음악축제의 블록버스터라 불리는 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리사이틀부터 실내악과 관현악, 오페라와 연극 등 단 하나의 축제가 이렇듯 다양한 장르를 담고 있는 것도 흔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44일간 172편의 공연이 서로 다른 15개의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 중 축제의 메인 극장인 축제대극장(*Grosse Festspielhaus*)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리며 하우스 뷔르 모차르트(*Haus für Mozart*)와 동굴극장이라 불리는 펠젠라이트슐레(*Felsenreitschule*) 극장에서

는 오페라와 리사이틀, 그리고 마티네 콘서트는 모차르테움 재단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잘츠부르크 구 시가지에서 축제가 행해진다.



1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광장

2 뮌히스베르크 산에서 바라본 잘츠부르크 전경





3



4



5

- 3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4 하우스 뤼르 모차르트
- 5 펠젠라이트슐레 극장

축제대극장(Grosse Festspielhaus)

축제대극장은 하우스 뤼르 모차르트(구 축제소극장), 펠젠라이트슐레 극장 및 시청과 함께 과거 잘츠부르크 대주교의 궁정 마구간(Hofmarstall)의 일부였다. 시작은 400년 전인 1606년과 1607년에 볼프 디트리히 폰 라이테나우(Wolf Dietrich von Raitenau) 대주교 하에 지어졌으며, 이 단지 내에는 지금의 헤르베르트-폰-카라얀-광장(Herbert-von-Karajan-Platz)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이 건물은 확장되었고 현재 하우스 뤼르 모차르트가 있는 곳에 겨울 승마 학교가 세워졌고, 지금의 동굴극장이 있는 곳에는 여름 승마 학교가 만들어졌다. 이후는 농장 마구간 막사로도 사용되었으며 승마 학교는 기병대의 막사로 쓰이기도 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는 포병대가 주둔하기도 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첫 번째 홀인 펠젠라이트슐레 극장은 1925년 클레멘스 홀츠 마이스터의 계획에 따라 뮌히스베르크 산 북쪽 기슭에 있는 전 대주교의 말 마구간에 세워졌으며, 개관 당시 개막작으로 푸치니의 '투란도트'가 무대에 올랐다. 당시 페스티벌은 이미 오스트리아 국영 라디오 생방송의 네트워크로 전송될 만큼 화제가 되었다. 이듬해 뮌히스베르크 암벽에 만들어진 주교의 승마 학교는 지금의 하우스 뤼르 모차르트로 바뀌었고 카를로 골도니의 미스터리 연극 '두 주인의 하인'이 첫 작품으로 공연되었다.

1,500석 규모인 하우스 뤼르 모차르트는 페스티벌 최초의 전용 공간인 축제극장(Festspielhaus)이 되었다. 하지만 이 이름은 1960년에 규모가 더 큰 신 축제극장(Neues Festspielhaus)이 바로 옆에 개관할 때까지 쓰였으며, 이후 구 축제극장(Altes Festspielhaus)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몇 차례 시즌동안 역사를 모르는 방문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두 극장 모두 크기에 따라 이름이 바뀌었고 구 축제극장은 소 축제극장(Kleines Festspielhaus)으로 바뀌면서 2004년까지 42년 동안 불리우게 된다. 이후 다시 리노베이션을 거치면서 2006년 재개관, 현재의 하우스 뤼르 모차르트로 불리면서 모차르트와 로시니 오페라와 같은 바로크 무대 작품을 위한 페스티벌의 주요 극장으로 자리매김한다.

1960년에 착공해서 2년만에 완공된 현재의 축제대극장(Grosse Festspielhaus)은 오스트리아 건축가 클레멘스 홀츠마이스터(Clemens



6 관객들로 가득 찬 축제대극장

Holzmeister)의 계획에 따라 콘서트홀을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1956년에서 1960년 사이에 무대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뮌헨-베르크 산의 5만 5천 평방제곱미터의 면적만큼 철거한 후 건립되었다. 축제대극장은 1960년 7월 26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지휘 하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로젠카발리에(Der Rosenkavalier)'로 문을 열었다. 이 작품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가장 중요한 세 인물, 즉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휴고 폰 호프만슈탈, 막스 라인하르트가 함께 관여했다.

축제대극장은 그 이름에서 보듯 규모가 상당하다. 먼저 객석 수는 2,279석에 이르며 무대 폭은 무려 100m에 이르며 그 깊이는 25m나 된다. 그래서 100여 명의 관현악단이 무대에 올라도 여백이 많기에 음향 반사판을 양쪽에 두는 경우가 많다. 리사이틀을 할 때면 더더욱 그러하다. 콘체르탄트 오페라 또는 막이 전환하는 오페라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도 하는데, 역시나 무대 폭 100m는 압도적이다.

올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빈 필하모닉의 경우 헤르베르트 블롬슈타트, 안드리스 넬손스, 리카르도 무티, 구스타보 두다멜, 야닉네제 세기의 지휘로 10차례의 공연이 축제대극장의 메인 연주로 호스트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웨스

트 이스트 디반 오케스트라, 오슬로 필하모닉,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 초청되었다. 오페라의 경우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지휘하는 모차르트 오페라 '돈 지오반니'와 크리스티앙 틸레만이 지휘하는 스트라우스의 '카프리치오'가 축제대극장의 무대에 섰다. 페스티벌 기간동안 가장 주목을 받는 공연이 이 둘이며 가장 먼저 매진되었다. 과거에는 적어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초청교향악단의 경우는 대부분 축제대극장에서 공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엔 쾰른라이트술레와 모차르트 재단에서 공연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리사이틀의 경우도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경우 다른 솔리스트와 다르게 축제대극장에서 공연되었는데, 2,279석을 매진시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래서 최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주요 세 극장 하우스 푸르 모차르트와 쾰른라이트술레, 그리고 축제대극장을 나누는 기준은 장르보다는 매표와 흥행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잘츠부르크 축제대극장의 경우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축제 기간에만 가동된다. 페스티벌의 메인인 여름 축제와 1월 27일 모차르트가 태어난 날에 맞추어 열리는 모차르트 주간(mozart woche), 그리고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Osterfestspiele Salzburg)이 그 기간이다.



콜드플레이

기후위기 시대 공연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나

•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엔(UN)은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화(熱火)의 시대가 왔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폭염, 가뭄, 폭우, 태풍, 홍수 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 1.5도를 넘어선 것으로 관측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의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공연예술은 무엇을 해야 할까.

사실 공연예술은 친환경 면에서 보면 환경 파괴가 심각한 분야다. 길어야 몇 개월 짧으면 하루 이틀 공연을 위해 무대 세트, 의상, 소품, 포스터 등을 제작해야 한다. 공연을 위해 필요한 전기 에너지는 물론 공연을 보러 이동하는 교통수단 등 관객들의 탄소 배출량까지 계산하면 만만치 않다.

공연계에서 환경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5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다. 이번에 핵심적으로 살펴볼 영국의 경우 2008년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80%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영국 문화예술계도 기후 대응에 나섰다. 가장 선진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것은 영국 첼리스트 엘리슨 티켈이 동료들과 2007년 설립한 ‘줄리의 자전거’다. 문화예술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방법을 연구 및 소개하는 비영리단체인 줄리의 자전거는 2007년 옥스퍼드대 환경변화연구소에 영국 음악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감소 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촉했다. 이에 옥스퍼드대는 100개 넘는 음악 관련 단체와 협력한 끝에 온실가스 총량을 측정하는 한편 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2009년 공연장, 오케스트라, 축제 등 문화예술계에서 각각의 방식에 맞춰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그린 툴(ig-tools.com)’을 개발했다. 덕분에 지속가능한 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 오케스트라연합회가 2011년 제작한 ‘그린 오케스트라 가이드(Green Orchestra Guide)’다. 이 가이드는 공연장 운영, 연주 투어, 음반 녹음과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운영법을 제시한다. 영국예술위원회도 2012년부터 영국 전역의 예술단체에 에너지와 물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등 탄소 감소 계획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국 극장들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조명과 단열재로 건물을 개조하는가 하면 폐기물을 상당 부분 재활용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영국 국립극장의 ‘시어터 그린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창작자를 위한 안내서’ 표지

영국을 대표하는 국립극장(NT)은 2030년 탄소 제로를 목표로 2021년부터 '시어터 그린북(Theatre Green Book)'의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시어터 그린북은 지속 가능한 극장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프로덕션' '건물'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이 상세히 정리돼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번역이 완료돼 인터넷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예술가들도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2019년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기 전까지 투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콜드플레이는 2022년 지속 가능한 투어 방식을 소개하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탄소 저감에 대한 12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투어를 재개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연에 사용하는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한 것이다. 공연장에 태양광 타일을 설치한 후 충전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가 하면 관객들이 발을 구르며 뛰면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를 바닥에 설치했다. 또 무대세트를 친환경 재료로 만들고 저에너지 LED 스크린 레이어를 사용해 전력 소비를 줄였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콜드플레이의 월드 투어 탄소 배출량은 앞선 투어 때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유럽에서는 기후위기를 이유로 투어를 중단하는 예술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프랑스 출신으로 유럽 현대무용계에서 손꼽히는 안무가 제롬 벨이 대표적이다. 벨은 2019년 기후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탄소 배출의 주범인 비행기 탑승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작업 과정의 변화를 추구했다. 작품의 물리적 이동이라는 일반적인 투어 대신 예술가의 콘셉트가 이동해 현지 창작 및 제작팀과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선보인 <갈라>와 2023년 읍/신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제롬 벨>은 벨은 오지 않고 벨이 제시한 프로토콜에 따라 한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유럽의 경우 항공 탑승 없이도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고 공연장 네트워크가 촘촘하기 때문에 친환경 투어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아시아 등 비유럽 국가 예술가들은 유럽 예술가들처럼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한국

예술가만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지 않고는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콘셉트 투어링은 벨처럼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예술가나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공연계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2020년 민간 예술가와 프로듀서 사이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해 공공 분야로 점차 확산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워킹그룹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시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2023년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창제작을 위한 안내서> 등 참고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다. 국립극장의 경우 태양광 발전 설비를 극장에 설치하고 조명을 LED로 모두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약과 함께 폐기물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립극단도 2022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의상, 소품, 신발과 장신구 등 물품을 민간연극단체와 나눠 환경 보존을 실천하고 있다. 또 서울문화재단도 2023년 예술인들의 창작 과정부터 직접적인 친환경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한국연극협회 등 공연계의 여러 단체와 협력해 공연 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을 구축했다. 리스테이지 서울은 공연 후 버려지던 물품을 위탁 보관해 저렴한 비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젊은 연극인들의 경우 종이 대신 온라인으로 티켓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친환경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솔직히 국내 공연계의 기후위기 대응은 상당히 늦은 편이다. 문화예술 정책과 인프라의 중심에 있는 공공,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아직은 환경 문제를 중심 과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비가 시급하다.



서울문화재단 '리스테이지 서울'

SUN	MON	TUE	W
<p>1</p> <p>◆ 2024 부산오페라시즌 개막작 '나비부인' 17:00 대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가야금연주단 제19회 정기연주회 '바람이 불어오는 곳' 17:00 중 초대/부산가야금연주단(010-9669-7922)</p> <p>스트링 아데소 정기연주회 18:00 챌 초대/스트링 아데소(010-4006-0059)</p>	<p>2</p>	<p>3</p> <p>2024 제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 '개막콘서트'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p> <p>부산작곡가협회 제53회 창작곡 발표회 19:30 중 초대/부산작곡가협회(010-7600-4514)</p> <p>제65회 부산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19:30 챌 부산독일가곡연구회(010-8455-2383)</p>	<p>4</p> <p>2024 제15회 부산마루 콘서트' 14:00 대 초대/부산마루국제음악제</p> <p>미루샘합창단 제25회 정기연주회 중 무료/부산여성문화회관</p> <p>2024 제15회 부산마루 'Friendship&Passion' 콘서트 챌 초대/부산마루국제음악제</p>
<p>8</p> <p>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념 음악회 'The Sounds of Busan!' 19:00 대 5만원·3만원·2만원/국제신문(500-5222)</p> <p>해아연 '함께 가요(歌謠) 부산' 18:00 중 해아연(010-6388-7639)</p> <p>에클라 트리오 '20세기로의 여행' 15:30 챌 초대/에클라 트리오(010-8272-5306)</p>	<p>9</p>	<p>10</p> <p>◆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4회 정기연주회 '오르간'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듀오지음 정기연주회 '박정희&권준 듀오 리사이틀' 19:30 챌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11</p> <p>2024 제15회 부산마루 'KNN방송교향악단 All Stars' 콘서트 대 5만원·3만원·1만원 KNN방송교향악단(810-0100)</p> <p>독우회 제56회 정기연주회 피아노로 듣는 오페라 이야기 중 초대/독우회(010-8510-0100)</p>
<p>15</p>	<p>16</p>	<p>17</p>	<p>18</p>
<p>22</p> <p>2024 제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13:00, 17:00 대 초대/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p> <p>아르떼 예술단 협동조합 제3회 정기연주회 17:00 중 전석 2만원 아르떼 예술단 협동조합(070-8095-9426)</p> <p>제19회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17:00 챌 전석 2만원/최낙주(010-4536-2351)</p>	<p>23</p>	<p>24</p>	<p>25</p> <p>한화생명 콘서트: 가수 변진섭 '제이에스바흐' 010-2000-0100</p> <p>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 국악' 10:30 중 전석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공연팀</p> <p>박순현 피아노 독주회 19:30 챌 전석 1만원/박순현(010-8510-0100)</p>
<p>29</p> <p>부산국악협회 '기억해야 할 미래' 17:00 대 부산국악협회(644-5211)</p> <p>부산플루트앙상블 제30회 기념 특별연주회 17:00 중 초대/부산플루트앙상블(010-2459-4147)</p> <p>제3회 김대훈 색소폰 독주회 'Mirage' 18:00 챌 전석 2만원/김대훈(010-8567-3502)</p>	<p>30</p>	<p>31</p>	<p>31</p> <p>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사랑채극장' 9월 7일(토)~10일(수) (9월 14일 공연) ※ 화-금요일 오후 7시 ·관람료: 전석 1만원 ·문 의: (재)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연</p>

WED	THU	FRI	SAT
4	5	6	7
국제음악제 '스콜 클래식' 공연 (516-8293~4) 기연주회 '가족' 19:30 (320-8332, 8343) 국제음악제 'In Concert' 19:30 (516-8293~4)	2024 제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Ⅲ 국립경향교향악단 '위대한 유산' 19:30 대 초대/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 제11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19:30 중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2024 제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앙상블 콘서트Ⅰ 19:30 캠 초대/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	제12대 홍석원 예술감독 취임 기념 2024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Ⅳ 'Prelude'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13대 부산문화회관 미술관 옆 콘서트홀 Ⅲ 19:3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김윤호 기타 리사이틀 19:30 캠 전석 2만원/(주)블렌딩아트컴퍼니(070-7537-1248)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천사들의 노래' 17:00 대 3천원·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6회 정기연주회 '청춘 歌樂' 17:00 중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2회 바리톤 안세범 독창회 17:00 캠 전석 2만원/안세범(010-2430-4214)
1	12	13	14
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Ⅴ 'That Mozart' 19:30 (50-9868) 합창단 30주년 기념 '가야기' 19:30 (5-2525, 010-4800-6224)		2024 제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Ⅵ 국립부산국악원 '전통의 울림' 19:30 중 초대/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 앙상블 구도 창단연주회 19:30 캠 전석 1만원/앙상블 구도(010-8548-4011)	
8	19	20	21
	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 릴레이 콘서트 시리즈 9 '내가 만난 브람스' 19:30 중 초대/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010-9235-9356)	부산신포니에타 제105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전석 3만원/부산신포니에타(010-2623-0448) 아티스떼 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19:30 캠 1만원·5천원/아티스떼 앙상블(010-7771-1830)	2024 제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13:00, 17:00 대 초대/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 오륙도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중 부산남구청(010-7472-5510) 테너 김희수 귀국 독창회 17:00 캠 전석 1만원/김희수(010-4813-0018)
15	26	27	28
신선과 로맨틱 발라드 19:30 (2771-2989) 공연 '재밋는 국악 신나는' 공연 (607-3115, 3113) 사업팀 (607-3115, 3113) :30 클래식(010-8007-6851)	루체살레 제6회 정기연주회 '대한민국 창작 오페라 페스티벌' 19:30 대 전석 2만원/루체살레(010-5015-9215) BUM타악기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노크' 19:30 중 BUM타악기앙상블(010-9817-0010) 소프라노 권소라 독창회 19:30 캠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	제14대 (재)2024 마티네 콘서트 Ⅲ '모차르트' 11:00 대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이진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캠 초대/비비아첼(746-2023)	제15대 (재)부산문화회관 2024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Ⅴ-영화평론가 이동진' 15:0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10회 황미리 플루트 독주회 17:00 캠 초대/문화공감(0507-1490-8987)

특별공연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10월 12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없음),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전 10:30 예술교육공연(단체관람)
만2천원(전 연령 관람가, 미취학 아동 부모 동반)
산문화회관 607-6000
문의는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5, 3113

전시실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7월 2일(화)-10월 27일(일)

·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7:00

(오후 6:00 입장 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료: 성인(20세 이상) 2만원, 청소년(14~19세) 1만6천원, 어린이(3~13세) 1만2천원

· 문 의: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1661-1079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
<p>1</p> <p>연극 '축하케이크' 15:00 <small>소</small> 전석 3만원/잠방(070-8019-1519)</p>	<p>2</p>	<p>3</p> <p>2024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 10:00 <small>소</small> 한국문화예술위원회(02-324-6793)</p>	<p>4</p> <p>2024 제15회 부산마루국악 '콘체르토 컴피티션 갈라콘서트' <small>대</small> 초대/부산마루국악제음 2024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 <small>소</small> 한국문화예술위원회(02-324-6793)</p>
<p>8</p>	<p>9</p>	<p>10</p> <p>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김옥련 발레단 '거인의 정원' 10:00 <small>대</small> 김옥련 발레단(010-7167-7200) 2024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 10:00 <small>소</small> 한국문화예술위원회(02-324-6793)</p>	<p>11</p> <p>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김옥련 발레단 '거인의 정원' <small>대</small> 김옥련 발레단(010-7167-7200) 2024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 <small>소</small> 한국문화예술위원회(02-324-6793)</p>
<p>15</p>	<p>16</p>	<p>17</p>	<p>18</p>
<p>22</p> <p>어린이 뮤지컬 '그리스 로마 신화_신들의 왕 제우스' 11:00, 14:00 <small>소</small> 전석 6만6천원/울컴퍼니(1670-9788)</p>	<p>23</p>	<p>24</p>	<p>25</p> <p>대양 가을음악회 14:00 <small>대</small> 대양고등학교(640-0111)</p>
<p>29</p> <p>헬로카봇 뮤지컬 시즌8 '미래연구소를 지켜라!' 11:00, 14:00 <small>대</small> 7만원·6만원/뽀빠이(1566-9621)</p>	<p>30</p>		

ED	THU	FRI	SAT
4	5	6	7
<p>재음악제 메인콘서트II '콘서트' 19:30 악제(516-8293~4) 카데미 10:00 (02-324-6793)</p>	<p>2024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 10:00 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02-324-6793)</p>	<p>마비노기 20주년 오케스트라 콘서트 '별을 위하여' 17:00 대 10만5천원·8만5천원·6만5천원 (주)스토틀뮤직(02-2658-3546) 그랑프리 음악 콩쿠르 09:00 소 그랑프리 음악 콩쿠르(010-9305-4654)</p>	
1	12	13	14
<p>지원사업 '어릴적에(藝) '일' 10:00 (167-7200) 카데미 10:00 (02-324-6793)</p>	<p>2024 제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롬나드콘서트III '세종행배양상블과 함께하는 옴니버스 콘서트' 19:30 대 전석 3만원/K-Class STAGE(02-523-7789) 2024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미 10:00 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02-324-6793)</p>		
8	19	20	21
			<p>◆ (재)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부산 '수선되는 밤*정글' 17:00 대 4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어린이 뮤지컬 '그리스 로마 신화_신들의 왕 제우스' 11:00, 14:00, 16:00 소 전석 6만6천원/울컴퍼니(1670-9788)</p>
5	26	27	28
<p>(647)</p>	<p>상지건축 창립 50주년 기념 북 콘서트 '오! 부산' 15:00 소 무료/상지건축(240-1526)</p>	<p>2024 시민뜨락축제 12:10 아 무료/부산시민회관(630-5214)</p>	<p>헬로카봇 뮤지컬 시즌8 '미래연구소를 지켜라!' 11:00, 14:00, 16:30 대 7만원·6만원/㈜밝은누리(1566-9621) 국제영재음악콩쿠르 부산대회 09:00 소 국제영재예술진흥회(010-3203-2027)</p>
			<p>전시실 프레리 개인전, 프레리 인 뉴질랜드 부산전 9월24일(화요일)~9월 29일(일요일) 전시실 1 ·문 의: 프레리아트 010-8257-1495</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2025년도 상반기 (재)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 안내

대상

- ◆ 부산문화회관: 공연장(대/중/챔버홀), 전시실
※ 사랑채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 부산시민회관: 공연장(대/소극장), 전시실
- ◆ 휴관일 안내
: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공연장과 전시실 대관 불가
※ 셋업, 철수, 운영 등 작업 불가
(대관 시 휴관일은 대관료에 미포함)
-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중복 접수 불가

대관내용

- ◆ 대관기간: 2025. 1. 1.(수) ~ 6.30.(월) (6개월)
- ◆ 대관가능일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대관
공지사항 참조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8.29.(목) 09:00 ~ 9.13.(금) 18:00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www.bscc.or.kr/rental/)
- ◆ 결과회신: 2024년 10월 예정

대관심의 우선기준

- ◆ 기초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공연(행사) 및 전시는 대관 제외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사용료 납부

- ◆ 계약금(대관료의 2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 잔금
: 공연/전시 예정일 30일 전(대극장 60일 전)까지 계약
금을 제외한 80% 납부
※ 납부기한 내 계약금 미입금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취소 이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사용예정일이 대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계약금과 잔금 동시에 납부

대관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접수
-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 첨부
※ 공연/전시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 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담당 051-607-6052, 6056
- ◆ 부산시민회관 공연장 담당 051-630-5214
- ◆ 부산문화·시민회관 전시실 담당 051-607-6133



INVITATION TO THE ARTS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C 등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H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 2774- 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O 액터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E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E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S SMA아트홀 1600-1602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 부산 수선되는 밤 × 정글



일시 9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좌석 **R석** 4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국립현대무용단의 지역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이 9월 21일 부산시민회관에서 펼쳐진다.

지역 안무가를 발굴하기 위한 신규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은 현대무용 생태계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동시대 사회와 역사, 그리고 사람에 관한 주제의식을 담은 현대무용 레퍼토리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극장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모를 통해 지역 안무가를 선정했다. 올해는 (재)부산문화회관(부산·경남권)과 세종예술

의전당(세종·충청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전남권),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경북권)이 권역별 파트너극장으로 참여하면서 협업을 통한 4편의 작품이 제작된다. 부산에서는 (재)부산문화회관이 협력 파트너로 참가하여 박재현 안무가의 '수선되는 밤'을 선정했으며, 9월 21일 국립현대무용단 김성용 예술감독의 안무작 '정글'과 함께 무대에 올린다. '수선되는 밤'은 부산시민회관을 시작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 세종예술의전당 3개 극장의 무대에 오르며, 앞으로 국립현대무용단의 레퍼토리가 된다.

낮선 자들의 발자취를 통해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여정 박재현 안무가 <수선되는 밤>

'수선되는 밤'에서 '수선(垂線)'은 일정한 직선이나 평면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을 의미한다. 박재현 안무가는 이번 작품에서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움직임으로 혼란스럽고 떠들썩한 어지러움을 고쳐나가는 의미를 만들어내며, 이정표 없는 길에서 방향을 잃은 낮선 자들의 발자취를 통해 유토피아를



안무가 박재현



<수선되는 밤> 연습 사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아낸다. ‘수선되는 밤’은 선정 당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안무가로서의 고유한 작업 방식, 각자만의 개성을 넘어서 안무에 담아낼 수 있는 역량, 무용단과 극장 등 다양한 관계와의 소통 및 협업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박재현은 2000년 제18회 KBS부산 무용콩쿠르 대상 등 입상을 통해 무용수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무가 집중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그 녀석=크라잉’을 기점으로 안무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박재현은 2009년 제3회 문화올림픽 세계델픽대회에서 ‘thou, thou, thou’로 은메달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는 크리티크 초이스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2년과 2016년에는 안무작 ‘노년의 기록’, ‘금홍아 금홍아’로 제21회 및 제25회 부산무용제 대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 제16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국제안무가육성경연에서는 ‘굿모닝 일동씨-슬픔에 관하여’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2016년 ‘경희댄스시어터’를 창단하여 개성있는 움직임과 독창적 춤 빛깔을 나타내며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는 박재현은 지난 2022년,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에 대한 성찰을 담은 ‘우물가의 살인사건-그곳엔 사람이 산다’를 선보이며 ‘날것으로 드러나는 무대’, ‘낯설고 파격적인 이미지’를 선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곳 김성용 예술감독 <정글>

김성용 예술감독의 ‘정글’은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곳, 정글로 표상된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해프닝을 원근적 시점으로 들여다본 작품이다. 그가 개발한 비정형적 움직임 리서치 ‘프로세스 인잇(Process init)’을 통해 이끌어낸 창의적인 움직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용수 개인의 감각을 깨우고 상호간 반응을 탐색하여 움직임의 변화와 확장을 만들어낸다. 출연 무용수는 제작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움직임을 함께 만드러나가는 협업 아티스트인 ‘프로세서’로써 참여한다. ‘정글’은 지난해 10월 국제현대무용제(MODAFE·모다페)에서 초연된 신작으로, 올해 다시 공연되면서 일본의 사운드 아티스트·작곡가 마리히코 하라 등 새로운 창작진이 참여해 한층 더 새롭고 깊어진 무대로 완성되었다.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 13구 극장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오스트리아-카자흐스탄을 순회하는 해외투어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정글> 공연 사진

‘무용은 말로 할 수 없는 말이다’라는 철학을 가진 김성용 예술감독은 ‘가장 진실한 표현도구’로서의 춤을 추구하며, 무엇보다 솔직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예술임을 강조한다. 말로는 도저히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움직임으로 구현해내는 그에게 안무작업은 늘 새로움의 보고 속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감각과 반응’에 집중한 김성용 감독의 ‘Process init’은 이런 그의 작업과정을 더욱 공고히 한다. 15세에 무용을 시작한 그는 1997년 20세에 동아무용콩쿠르 금상을 최연소 수상, 일본 나고야 국제 현대무용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하는 등 무용수로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100여 편 이상 선보인 그의 안무작들은 해외 유수의 극장 및 국내에서 공연됐으며 다수의 수상 이력을 통해 그 능력을 검증한 바 있다. 또한 대구 시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 보여준 특유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무용수들의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무용단을 다각도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공연에 앞서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9월 6일과 7일 부산, 경남지역의 무용 전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작품 ‘정글’에 출연하는 정재우 무용수 겸 안무가가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체 리듬감과 협응력 훈련을 통해 움직임 수행 능력과 즉흥, 바디컨택을 통한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역 기반 안무가의 작품을 제작하고 유통하다

국립현대무용단 지역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

• 대담 •

김성용 국립현대무용단 단장·예술감독
윤대성 월간 댄스포럼 편집장



예술감독 김성용

처음이다. 국립현대무용단이 작품을 제작해 서울 아닌 지역에서 우선 공개하는 건. '코레오 커넥션'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극장과 협업해 안무가 선정부터 작품 제작, 공연까지를 서울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다. 약칭 '국현무'와 활동하려면 기회의 땅으로 오라는 시그널 대신, 지역 안에서 기회가 늘어나도록 직접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파트너 극장으로 부산시민회관(부산·경남권), 세종예술의전당(세종·충청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전라권),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경북권) 네 곳과 손을 잡고, 공모를 통해 지역 안무가를 선정했다. 이들 작품과 국립현대무용단 레퍼토리를 조합해 부산을 비롯한 곳곳의 관객을 만난다.

● **윤대성** 지역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은 무용 무대가 편중된 수도권이 아닌, 지역 기반 안무가의 작품을 제작하고 유통하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처음 듣고는 서울까지 오기 어려운 안무가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는 게 참 반가웠어요. 동시에 수도권은 빠고 진행한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2024시즌 기자간담회 장에서 제가 좀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음에도 차분하게 답변하시던 단장님 모습이 생각나네요(웃음). 그만큼 확신이 있으신 것으로 보였는데요.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어째서 중요한가요?

● **김성용** 지역에도 국립현대무용단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했어요. 국립현대무용단이 외부 창작자를 위한 안무 센터 기능을 겸하고 있는 만큼, '국립'으로서 지역을 포괄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전에 대구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을 하면서 주어지는 기회나 창작 환경은 매우 열악함에도 개성 있는 무용가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국현무의 근거지가 서울이다보니 시즌 무용수라든지, 지원하는 안무가들이 대부분 수도권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서울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서 해프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안무자도 추진력을 얻지만, 인근에서 무용수를 고용할 수 있지요. 제작부터 공연까지 해프닝이 일어나는 장소를 바꾼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윤대성** 지역 무용수의 고용 문제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요. 수도권에서 주로 활동하는 무용수들은 김 감독님이 안무한 '정글'이라든지 서울에서 제작하는 작품의 시즌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지역상생 프로젝트 '코레오 커넥션'은 지역에 집중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거군요. 그럼 질문을 바꿔보지요. 창작 측면에서 기대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성용** 공모 과정에서 작품당 최대 400만 원의 지원 준비금을 지원했습니다. 꼭 최종 선정되지 않더라도 10~15분 정도의 짧은 작품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지역 안무가들이 얻은 거지요. 최종 선정된 안무가들은 국립현대무용단의 제작 시스템을 통해 경험치를 높이고 시야를 넓히길 바랍니다. 그냥 지원금을 받는 것과 시스템을 학습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해요.

● **윤대성** 공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권역별로 분위기가 참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일단 지원 수부터 편차가 있었습니다. 광주·전라 4편, 대구·경북 5편, 세종·충청 7편, 부산·경남 12편으로, 특히 부산의 경쟁률이 치열했지요. 부산은 편 수도 많았지만 안무가마다 개성이 뚜렷했던 기억이 나요. 서울 다음으로 무용 공연이 많이 이뤄지는 도시이기도 하고,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이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지역별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용** 부산·경남권은 작가들 성향이 달라서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거리낌이 없고 작품 스타일이 다양하더라고요. 최종 선정된 박재현 씨의 '수선되는 밤'은 신작이라 예측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개성 강한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시연한 작품들은 대구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지역 무용계가 흘러왔는지 그 DNA가 느껴졌달까요. 전국 유일의 시립 현대무용단을 보유한 만큼 단단한 축맥이 있더라고요. 세종에선

역사가 드러나기보다, 각자의 영역을 만들어나가는 사람이 부각되어 흥미로웠습니다. 광주·전남권은 공모 작품 수는 적었지만 신진부터 베테랑까지 양쪽을 모두 만나 볼 수 있었어요.

● **윤대성** 권역별 1편씩 총 4편이 선정됐지요. 신작과 기존 레퍼토리 재개발이 딱 반반입니다. 신작은 부산·경남 박재현 '수선되는 밤'과 대구·경북 박수열 '뭍', 기레퍼토리 재개발은 세종·충청 정진아 '아니요, 네'와 광주·전라 최재희 '켜켜'예요. 여기에, 국립현대무용단 레퍼토리 '정글'과 어린이 무용 '얹! 얹! 얹!'을 더해 총 6편으로 '코레오 커넥션'을 꾸렸습니다. 9월 21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파트너 극장마다 자기 권역을 포함한 2-3편을 공연하고, 지리적으로 중간에 있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선 모든 작품을 선보이지요. 이때 해외 프리젠티를 초청하는 등 유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 **김성용** 공연 결과물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진출 기반은 마련할 수 있도록 해외 관계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좋은 작품이 나와서 국내외를 활발히 누비면 좋겠어요.

● **윤대성** 올해 처음 선보이는 '코레오 커넥션'이 단번에 예술적 성과로 칭찬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요. 취지 자체가 지역 무용계에서 분투해온 안무가의 작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지역 균등'에 있으니까요. 그런 염려도 느껴지네요. 함께 성숙해지려면 결국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코레오 커넥션' 공모 계획이 있나요?

● **김성용** 그렇습니다. 다만 권역을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지 논의하고 있어요. 한정된 예산이지만 파트너 극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더 많은 권역에서, 더 많은 안무가들이 거리낌 없이 지원해 기회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미술관 옆 콘서트홀III

헤어짐과 그리움

9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미술해설 이주현



음악해설 손지현



테너 조윤환



연주 무지카비바 앙상블

클래식과 미술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 ‘미술관 옆 콘서트홀’ 2024년 마지막 무대가 9월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미술관 옆 콘서트홀’은 특별한 키워드로 묶어진 음악과 미술 작품을 상세한 해설과 연주로 만나는 렉처콘서트로, 가을로 접어드는 9월에는 ‘헤어짐과 그리움’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음악과 미술작품을 만날 수 있다.

삭막한 겨울을 향해 가는 가을은 이별의 계절이기도 하다. 상실의 계절이기에 그리움은 더욱 커진다. 예술가라면 이런 이별과 그리움의 정서를 그림으로 그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무대에서는 풍경화를 통해 이별의 정서를 매우 잘 나타낸 화가 에곤 실레의 작품을 비롯하여 조지프 드캠프의 ‘작별’, 밀레이의 ‘위그노’ 등 이별 가운데서도 가장 아련하게 다가오는 연인들의 이별을 그린 작품을 살펴본다. 특히 이별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은 사별이라 할 수 있는데, 인류 가운데 사별을 가장 처음 경험한 사람은 바로 아담과 이브이다. 아들 아벨의 주검 앞에서 슬퍼하는 두 부모를 그린 부

그로의 ‘최초의 애도’를 비롯하여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화가들이 그린 아내의 초상화 등 사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또, 이별 후 그리움을 담은 작품은 무엇이 있을까. 외지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에게 고향은 가장 그리운 풍경 이미지이다. 이 고향 이미지를 캔버스에 옮긴 밀레, 쿠르베, 콘스터블의 손길을 따라가 보고, 낭만주의 화가들과 상징주의 화가들이 그린, 그리움을 자극하는 다양한 명화도 감상해 본다.

이번 무대 역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던 아트 스토리텔러 이주현과 클래식 전문 아나운서 손지현이 ‘미술관 옆 콘서트홀’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이별과 그리움을 노래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독일 막대부르크 주립극장 객원솔리스트를 역임하고 2022년 부산음악인상을 수상한 테너 조윤환과 무지카비바 앙상블이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을 비롯하여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 한국가곡 ‘가고파’(김동진 곡), 영화 ‘가을의 전설’ 주제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4회 정기연주회

오르간

9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5천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학업과 연주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젊은 열정으로 감동과 위로를 전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9월 10일, 제74회 정기연주회 ‘오르간’으로 관객과 만난다.



지휘 백승현



바이올린 하유나



첼로 허예은



오르간 박준호

수석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세계 최고 권위의 실내악 콩쿠르인 런던 위그모어 홀 콩쿠르에서 우승한 에스메 콰르텟의 두 멤버 바이올리니스트 하유나와 첼리스트 허예은, 시간과 자연의 순례자라는 평담계 평온하고도 깊은 힘의 연주로 정평이 난 오르가니스트 박준호가 협연자로 출연, 다채로우면서도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작품 102’로, 바이올리니스트 하유나, 첼리스트 허예은의 협연으로 펼쳐진다. 이들 두 멤버와 바이올리니스트 배원희, 비올리스트 디미트리 무라스코 구성된 에스메 콰르텟은 지난 2016년, 대학 동문이던 친구들이 뜻을 모아 실내악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결성한 현악사중주단으로, 창단 그 해 쾰른 실내악 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2017 독일 바이커스하임 실내악 페스티벌 신인상, 노르웨이 트론헤임 국제 실내악콩쿠르 3위를 차지하여 주목받았다. 창단 2년만인 2018년에는 런던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한국인 실내악단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무대에 당당히 이

름을 알렸다. 브람스의 마지막 관현악곡인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작품 102’는 브람스가 추구했던 교향적 협주곡의 정점에 있는 곡으로 열정과 차분함, 중후함과 치밀함이 잘 표현된 곡이다.

이어지는 곡인 생상스의 교향곡 제3번 ‘오르간’은 평생을 오르가니스트로 살았던 생상스의 오르간에 대한 애정이 엿보이는 그의 대표작으로, 오르가니스트 박준호의 협연으로 연주된다. ‘오르간’은 오케스트라와 오르간의 만남을 교향곡 형식에 녹여낸 작품으로, 2악장 구성이지만 각 2부씩 나누는 독특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오르간과 오케스트라의 조합이 교향곡에 독특한 색채와 깊이를 부여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곡이다.

협연자 박준호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오스틴 본교 음악대학의 오르간 교수로 발탁, 현지의 Redeemer Presbyterian Church의 오르가니스트 직을 역임했으며 2019년부터 롯데콘서트홀의 기획공연 ‘오르간 오딧세이’를 통해 오르간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휘 김광현



연출 엄숙정



소프라노 홍혜란



소프라노 박하나



테너 최원휘



테너 도영기

2024 부산오페라시즌 금정이 제작하는 마스터피스 오페라!

콘서트오페라 사랑의 묘약

9월 11일-12일 수-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금정문화회관 519-5661~4



19세기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를 이끈 대표적인 작곡가 도니체티의 로맨틱 코미디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9월 11일과 12일,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오페라 축제 '2024 부산오페라시즌'으로, 금정문화회관이 직접 공연을 기획, 제작하면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서 자주 상연되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두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도니체티만의 유쾌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낸 작품이다. 도니체티는 '사랑의 묘약'을 단 6주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데, 1832년 밀라노에서의 성공적인 초연 후 계속해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1838년부터 1848년 사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아디나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네모리노의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심을 울리는 서정적이면서 슬픈 단조 멜로디로, 우리에게는 전설의 테너 파바로티의 절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원주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김광현의 지휘, 국내 유수의 단체와 함께 다수 오페라를 연출한 엄숙정의 세련된 연출로 만날 수 있다. 지휘자 김광현은 KBS교향악단, 국립심포니, 경기필, 대전시향, 대구시향, 부천필, 부산시향, 수원시향, 인천시향 등 국공립 교향악단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니, 로이틀링겐 필하모니, 남서독일 콘스탄츠 필하모니, 튀링겐 필하모니, 슈투트가르트 실내악단, 체코 칼로비바리 심포니, 루마니아 크라이오바 심포니, 일본 규슈 심포니 등 해외 다수 교향악단을 지휘하고 국내외 주요 극장에서 20편이 넘는 오페라와 발레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연출가 엄숙정은 국립오페라단, 성남문화재단, 아트센터 인천, 대구오페라하우스, 서울시오페라단 등 국내 우수 단체와 함께 수 십편의 오페라를 연출했으며, 국내 최초 연출이 있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국립합창단과 작업하며 호평받은 바 있다.

출연진으로는 '아디나'役に 소프라노 홍혜란과 박하나, '네모리노'役に 테너 최원휘와 도영기, '벨코레'役に 바리톤 이동환과 김종표, '둘카마라'役に 베이스 김대영, '잔네타'役に 소프라노 곽유정 등 실력있는 성악가들이 캐스팅되어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홍혜란, 테너 최원휘 부부의 특별한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다. 연주와 합창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2024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가 맡아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작년에 광란의 아리아에 취했다면, 올해는 사랑의 묘약에 취해볼까요?

• 지나 오 성악가, <오페라의 여인들> 저자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로 작년 9월 큰 호평을 받았던 금정문화회관은 올해도 도니제티의 또 다른 명작을 선보인다. 같은 작곡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작년의 '루치아' 같은 치절한 비극이 펼쳐지라는 법은 없다. 과연 같은 작곡가의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유쾌한 코미디가 올 가을 기다리고 있다. 도니제티의 71개의 오페라 중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었고,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오페라인 '사랑의 묘약'을 만나보자.

1832년에 밀라노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오페라 작곡가로서 도니제티의 특별한 능력을 증명한다. 당시 오페라 작곡가들은 하나의 장르로 규정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진지한 오페라인 '오페라 세리아'의 대표자로는 벨리니가 있었고, 코믹 오페라인 '오페라 부파'는 로시니로 요약됐다. 그렇다면 도니제티는 어떤 장르를 대표했을까? 그의 대표작이 '사랑의 묘약'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1835)인 것처럼 도니제티는 대적점에 있는 두 장르 모두 능통한 작곡가였다. 작년 금정의 '루치아'를 기억하는 관객들이라면, 올해 '사랑의 묘약'을 색다른 즐거움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오페라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단순하지만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개한다. 주인공 네모리노는 마을의

아름답고도 똑똑한 여인 아디나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관심을 받지 못해 좌절한다. 그러던 중, 떠돌이 약장수 돌카마라가 '사랑의 묘약'을 팔며 등장한다. 순진한 네모리노는 돌카마라의 말에 현혹되어 비싼 값을 치르고 묘약을 구입하지만, 사실 그 약은 포도주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네모리노의 진실한 마음과 용기가 결국 아디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 사람의 사랑은 행복한 결말로 이어진다. 이렇듯 '사랑의 묘약'은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 금정문화회관 제작 공연에서는 엄숙정의 참신한 연출로 관객을 매혹시킬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도니제티 표 벨칸토 오페라의 진수를 들려줄 연주자들의 면면도 대단하다. 함께 무대에 서는 세계 정상급 성악가 부부인 소프라노 홍혜란(아디나 역)과 테너 최원휘(네모리노 역), 두 사람의 남다른 호흡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또한 독일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테너 도영기, 바리톤 이동환, 베이스 김대영과 부산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박하나, 바리톤 김종표, 소프라노곽유정 등 최고의 성악가들이 지휘자 김광현의 손끝을 따라 들려줄 황홀한 음악도 기대가 크다. 2024년 부산 오페라 축제의 대미를 사랑의 묘약을 마시며 만끽하는 건 어떨지.

2024 마티네 콘서트 III

모차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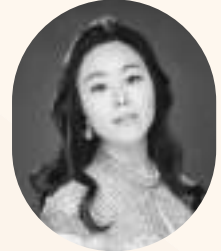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휘 정인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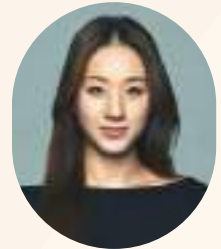
소프라노 박현진



소프라노 손주연



바리톤 이광근



첼로 홍승아



해설 손지현

한낮의 명품 공연으로 호평받았던 (재)부산문화회관 ‘마티네 콘서트’ 2024년 마지막 무대가 9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정인혁이 지휘하고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가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도 손꼽히는 모차르트 오페라의 주옥같은 아리아로 관객들과 만난다.

지휘자 정인혁은 2001년 한국지휘자협회가 주최하는 지휘캠프에서 최우수지휘자로 선정되어 일본 센다이 뮤직 페스티벌에 초청받았고 2006년 도쿄 국제 지휘 콩쿨에서 입상하여 일본 센다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일본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했다. 독일 베를린 콘체르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유럽 무대에 데뷔한 후 다수의 오페라를 지휘한 바 있으며, 귀국 후에도 비제의 ‘카르멘’,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 외에도 임준희의 오페라 ‘카르마’를 초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1년 11월 국립극장에서 앙브루아즈 토마의 오페라 ‘햄릿’을 한국 초연하여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특별상, ‘제1회 셰익스피어 어워즈 오페라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다. 2007년 창단한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는 소규모

실내악에서부터 오케스트라까지 연주가 가능한 단체로 그동안 부산의 실내악 문화를 주도하고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아나운서 손지현의 깊이 있는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가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에 이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피리’, ‘코지 판 투테’의 주요 아리아를 성악가들이 들려주며 첼리스트 홍승아가 연주하는 하이든 ‘첼로협주곡 제1번’과 모차르트 ‘교향곡 제40번’도 감상할 수 있다.

협연자인 소프라노 박현진은 독일 튀링겐 오페라 스튜디오 솔리스트와 독일 국영 방송국 MDR 객원 단원을 역임하고 바이마르, 에르푸르트, 노르트하우젠 극장 등에서 객원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며, 소프라노 손주연은 이탈리아 가곡 연주 대회 콩쿠르 2위 및 이탈리아 Federico il di Svevia 국제콩쿠르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이광근은 독일 울름 극장에서 주역 전속가수로 있으며 잉골슈타트, 바스바덴, 브레멘, 할레 극장 등에서 다수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다. 미국 The Republic 일간지로부터 섬세한 감성, 호화스러운 금빛 음색이라는 평을 받은 첼리스트 홍승아는 오사카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하고 인디애나 폴리스 마티네콩쿠르에서 우승했다.

2024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V 영화평론가 이동진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층 3만원, 2층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평론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며 높은 인지도와 두터운 팬덤을 지닌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강사로 부산을 찾는다.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는 대한민국 명사들의 강연과 다채로운 공연이 함께 펼쳐지는 (재)부산문화회관의 강연형 콘서트로, 올해는 ‘인문학적 패러다임: 공존’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출연, 인문학이 전해주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다섯 번째 강사로 시민들과 만나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은 한국 영화 평론의 대중적 관심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인물

로 평가받으며, 본업인 영화 해설을 중심으로 TV, 라디오, 유튜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한 후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조선일보 영화부 기자로 있으며 감성적인 문체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퇴사 후에는 영화평론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동의 지평을 넓혀갔다. 특히 MBC 라디오 ‘푸른밤, 그리고 성시영입니다’, KBS 라디오 ‘유희열의 라디오천국’의 고정 패널을 시작으로 라디오와 TV, 팟캐스트 등 지면을 넘어 방송 활동을 통해 폭 넓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가 쓴 책으로는 ‘이동진이 말하는 봉준호의 세계’,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이동진의 부메랑 인터뷰 그 영화의 비밀’, ‘밤은 책이다’, ‘길에서 어렵פות이 꿈을 꾸다’ 등이 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

‘영화 연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서 이동진은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배우의 연기이나 사실 영화 연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영화 연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떤 연기가 좋은 연기인지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영화 연기란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더 깊게 영화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강연에 앞서서는 리더 정준수를 중심으로 2015년 창단된 부울경·대구 대표

첼로 앙상블인 ‘디 첼리스텐 앙상블’의 연주가 펼쳐진다. ‘첼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지닌 디 첼리스텐 앙상블은 첼로가 가진 매력인 묵직한 음색으로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20세기 작곡가 빌라-로보스가 브라질의 민속음악 양식에 바흐의 대위법 양식을 적용시킨 ‘브라질풍의 바흐 제1번’ 2악장과 거슈윈의 ‘프라그먼트’를 들려준다.

한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는 11월 30일 미술사학자 양정무의 ‘르네상스의 완성과 종교개혁(난처한 미술이야기)’를 마지막으로 2024년 일정을 마무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3회 정기연주회

Romantic

10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브루크너 탄생 200주년을 맞아 브루크너 교향곡으로 꾸며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3회 정기연주회가 10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홍석원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히는 ‘교향곡 제4번’을 통해 ‘교향곡 작곡가’로서의 브루크너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브루크너 교향곡에 앞서서는 깊어가는 가을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을 섬세한 음색과 진중한 내면적 감성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특히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로맨틱하면서도 감수성이 풍부한 아름다운 곡으로, 19세기 낭만주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노부스 콰르텟 리더로 활동중인 협연자 김재영은 만 13세에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데뷔 무대를 가지며 우리나라 음악계에 등장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 졸업 후 도독,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2003년 그리스 영 바이올리니스트 국제 콩쿠르 2위, 사라사테 국제 콩쿠르 4위, 2007년 윤이상 국제 콩쿠르 3위 및 특별상, 2010년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 파이널 리스트로 MIMC상, 제37회 루이스 시갈 콩쿠르 3위 등 국내외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지휘 홍석원



바이올린 김재영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부천필, 수원시향, 울산시향, 포항시향, 군산시향, 코리아나 솔로이스츠, TIMF양상블, 폴란드 그단스크 필하모니, 빈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등 솔리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그는 어릴 때부터 실내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

을 보이면서 2005년 지겐 콰르텟과 함께 프라하의 봄 국제 콩쿠르에서 20살의 나이로 준우승과 함께 최연소상, 현대국상, 말러 상을 수상했다. 이후 노부스 콰르텟을 결성한 김재영은 2012년 현악 사중주 부문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ARD 국제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 유럽 무대에서 노부스의 이름을 알렸으며 이어 2014년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 실내악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2/2023시즌에는 영국 런던 위그모어홀의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인 음악가로서 위그모어홀에 최다 초청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어지는 브루크너 ‘교향곡 제4번’은 브루크너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곡으로, 브루크너의 교향곡 입문용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곡의 부제가 ‘낭만적(Romantische)’으로, 이는 브루크너가 자신의 교향곡에 공식적으로 제목을 붙인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브루크너 교향곡 중 최초이자 유일한 장조 교향곡으로, 브루크너 특유의 화려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과 깊은 정서적 표현이 돋보이는 곡이다.

613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브루크너 탄생 200주년 기념

Romantic

지휘 / 홍석원
바이올린 / 김재영

브루흐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브루크너 / 교향곡 제4번 "로맨틱"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2024 제15회 부산마루 국제음악제

연풍연가 演風演哥

CLASSICS ON THE BREEZE



2024 15TH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9월 3일(화)~13일(금)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영화의전당,
區 문화회관 외 부산 전역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4 제 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9월 3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지난 2010년 첫 걸음을 내딛은 후 그동안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관심 속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국제적인 음악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4년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주제는 ‘연풍연가(演風演哥): Classics on the Breeze’. 바람을 타고 흐르는 클래식 음악의 선율이 자연과 어우러져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음악의 조화를 통해 마음의 안식을 찾고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올해는 개막콘서트의 지휘를 맡은 폴란드 쇼팽음악원의 안 미워시 자르지츠키를 비롯하여 오늘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휘자 중 한명인 찰스 올리비에리 먼로, 세계적인 거장 쿠르트 마주어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지휘자’라는 평을 받은 윤승엽, ‘젊은 명장’이라는 찬사와 함께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홍석원,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베토벤 바이러스’의 주인공 서희태, 그리고 국립부산국악원 기악, 성악단 예술감독으로 있으며 부산의 국악발전에 힘써온 지휘자 계성원과 함께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 브랜든 라이드너,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수이자 텔러헤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트롬보니스트로 활동하는 하나 벨로그라백, 쿠바 출신의 피아니스트 마르코스 마드리갈,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 피아노 교수로 있는 알렉산더 코르산티아펠리 등 세계적인 지휘자, 연주자들이 부산을 찾아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음악제를 대표하는 메인콘서트로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사하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대표하는 메인콘서트는 9월 3일 개막콘서트를 시작으로 모두 6차례 펼쳐진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콘서트의 주인공은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안 미워시 자르지츠키가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 작품 62’,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작품 64’를 들려준다.



지휘 안 미휘시 자르치츠키



플루겔호른 브랜든 라이드너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을 선보이며 트럼펫 솔로리스트, 협업 아티스트, 작곡가이자 편곡가로 활동 중인 브랜든 라이드너가 플루겔호른 협연으로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2번 K.314'를 연주한다. 2014년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경연 대회에서 30년만에 우승자 명부에 이름을 올린 첫번째 트럼펫 연주자가 된 브랜든 라이드너는 2023년 아메리칸 브라스 퀸텟에 합류하며 자신의 모교인 줄리어드 음악학교 교수로 취임했다. 이번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위해 구성된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9월 4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메인콘서트 두 번째 무대는 예선을 걸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들이 경연을 펼치는 콘체르토 컴피티션 본선무대로, 백도영(트럼펫), 나오르 에쿠바(클라리넷), 이명원(바이올린), 용추 리우(피아노), 콘라트 루도비치(비올라), 권성민(바이올린), 김지민(바이올린)이 지휘자 찰스 올리비에리 먼로가 이끄는 KNN방송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갖는다. 지휘자 찰스 올리비에리 먼로는 지난 16년간 북체코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재직한 후 현재 명예 수석지휘자로 활동 중이며, 2015년부터 크라쿠프



지휘 찰스 올리비에리 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독일 튀링겐 필하모닉의 수석 객원 지휘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음악 축제인 텍사스 라운드 탑 페스티벌 연구소의 상주 지휘자로

도 활동하고 있다. 2016년 창단한 KNN방송교향악단은 부산, 경남 지역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인재 육성에 힘써왔으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향악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9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지휘자 윤승업이 이끄는 국립경찰교향악단이 메인콘서트 세 번째 주자로 무대에 선다. 이날 무대에서는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을 시작으로 도로시 게이츠 '트롬본을 위한 협주곡', 거쉰 '랩소디 인 블루', 베토벤 '교향곡 제7번 작품 92'를 들려준다. 최근 일본 미토시에서 열린 국제 여성 브라스 컨퍼런스에서 공연한 트롬보니스트 하나 벨로글라벡과 쿠바의 국제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인 '하바나 클라시카(Habana Clasica)'의 예술감독인 피아니스트 마르코스 마드리갈이 협연을 맡아 관객과 만난다. 1981년 관악대로 첫 발을 내딛은 후 1992년 오케스트라로 조직을 확대, 현재 90여 명 규모의 정규 오케스트라로 성장한 국립경찰교향악단은 친근하고 대중성 있는 레퍼토리와 활력이 넘치는 연주로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지휘 윤승업



트롬본 하나 벨로글라벡



피아노 마르코스 마드리갈

메인콘서트 네 번째 무대는 9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2회 정기연주회를 겸해 열리는 이번 무대는 특히 홍석원 신임 예술감독의 취임연주회를 겸한 무대로, '조용한 거장'(테일러 텔레그래프)으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코르산티아가 협연을 맡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비롯하여 슈트라우스 '잠미의 기사' 모음곡, 리스트 교향시 제3번 '전주곡'을 들려준다. 지휘자 홍석원은 전통적인 관현악 레퍼토리는 물론 오페



지휘 홍석원



피아노 알렉산더 코르산티아

라와 발레, 현대음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휘자로, 앞서 광주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조지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코르산티아는 명예 훈장 및 루스타벨리 상을 비롯한 조지아 최고 영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상을 다수 수상했으며 현재는 보스턴에 거주하며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피아노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올해로 창단 62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닌 부산의 자존심으로, 지난 1997년에는 대한민국 교향악단 최초로 미국 카네기홀 무대에 오른 바 있다.

9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서희태가 지휘하는 KNN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메인 콘서트 다섯 번째 무대가 펼쳐진다. 2022년부터 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는 상임지휘자 서희태는 KNN방송교향악단 외에도 (사)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수석지휘자, (사)한국오페라단 음악감독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활동과 전문강사로도 활동하며 클래식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교향곡 제25번’을 비롯해 ‘피아노 협주곡 제2번’, ‘교향곡 제40번’ 등 모차르트 음악으로 꾸며진다. 피아노 협연을 맡은 그리스 출신의 피아니스트 네펠리 무수라는 스페인 캄필로스 국제 콩쿠르, 아테네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젊은 피아니스트 상’, 월드 인 하모니 재단의 지나 바하우어 상 등 국제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한 바 있다.



지휘 서희태

올해 메인콘서트 마지막 무대는 9월 13일 부산문화회

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무대로, 국립부산국악원 기악, 성악단 예술감독 계성원이 지휘하고 성악단부수석 이희재(남창), 단원 김윤지(여창)가 협연한다. 1990년 제1회 KBS서울국악대경연 대회 최연소 수상자(작곡부문 은상)로 국악계에 데뷔, 2005년 대한민국 작곡상, 2010년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한 작곡가이기도 한 계성원은 2012년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로 본격적인 지휘 활동을 시작하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다.



지휘 계성원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에서부터 다채로운 스페셜 콘서트까지

초청연주자들의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앙상블 콘서트는 올해 모두 5차례 펼쳐진다. 9월 5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는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지는 ‘동서양의 만남’이, 6일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현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중국 콘서바토리 현악사중주단의 무대가 펼쳐지고, 7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탱고밴드 친친탱고와 바이올리니스트 릴리 시린 오파사나의 ‘Four Season of Tango’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중국 콘서바토리 현악사중주단의 무대는 올해부터 낮 시간에 선보이는 영도문화예술회관 ‘이음 마티네’ 공연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중국 음악을 콘서트 가이드 김성민의 해설과 함께 현악사중주로 감상할 수 있다. 10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는 박찬호(바이올린), 홍승아(첼로), 백동훈(클라리넷), 앤드류 링(비올라), 니에카와 후타바(피아노) 등 한·중·일 연주자의 앙상블이 어우러지는 앙상블 콘서트 네 번째 무대가, 마지막 무대로는 9월 25일 사상문화원 다누림홀에서 BMIMF 브라스앙상블과 최영진(바순), 문지우(바이올린), 신윤석(비올라), 신윤경(첼로)의 연주로 우리 귀에 친숙한 명곡을 만날 수 있다.

관객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프롬나드 콘서트’는 올해 4차례 진행된다. 특히 프롬나드 콘서트는 국제적 음악페스티벌로 자리잡기 위한 국제 문화교류 공연으로, 재능있는 해외연주자들의 콜라보 무대가 펼쳐진다. 9월 6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는 박용인(호른), 박경렬, 김용건(트럼펫), 이용우(트럼본), 문지우(튜바)로 구성된 골든브라스와 멕시코의 브라스밴드인 테오티우칸 브라스 앙상블이 무대에서 서며, 10일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에서는 높은 수준의 연주력과 창의성을 자랑하는 일본 브라스 밴드 뮤직 시스템 재팬과 함께 테오티우칸 브라스 앙상블이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난다. 9월 12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다양한 편성과 장르를 넘나들며 뚜렷한 색채를 가진 무대를 선보여온 (사)세종챔버앙상블과 함께하는 옴니버스 콘서트가 열리며, 같은 날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는 뮤직 시스템 재팬과 부산, 경남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그룹인 V.I.P 퍼커션 앙상블, 2015년 제주도립교향악단 타악기 수석 주자인 오승명을 주축으로 제주도 내 전문 연주자들이 모여 만든 타악 전문연주단체 오 퍼커션 앙상블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뮤직 시스템 재팬

올해 스페셜 콘서트에서는 안태연, 슈 카오, 지한 왕(피아노), 아르망 사파비(첼로) 등 라이징 스타들의 우정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Friendship & Passion Concert’와 차세대 연주자에서부터 중견 음악인까지 지역 음악인들의 열정넘치는 무대 ‘부산음악인 시리즈’, 실력 있는 앙상블팀의 경연무대 ‘부산국제실내악컴피티션’ 본선 갈라콘서트, 부산지역 내 특정장소를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아웃리치 콘서트’가 펼쳐진다. ‘부산음악인 시리즈’는 9월 5일부터 사흘간 ‘음악영재’, ‘라이징스타’, ‘부산음악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음악의 오늘과 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5일과 6일은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에서, 7일은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펼쳐진다.

주요 일정

메인콘서트

- M1 9월 3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M2 9월 4일(수)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M3 9월 5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M4 9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M5 9월 11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M6 9월 13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앙상블콘서트

- E1 9월 5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E2 9월 6일(금) 오전 11: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 E3 9월 7일(토) 오후 3: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E4 9월 10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E5 9월 25일(수) 오후 7:30 사상문화원 다누리홀

프롬나드콘서트

- P1 9월 6일(금)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P2 9월 10일(화)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 P3 9월 12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P4 9월 12일(목)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음악인시리즈

- B1 9월 5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B2 9월 6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B3 9월 7일(토)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스쿨 클래식 콘서트

- 9월 4일(수)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Friendship & Passion Concert

- 9월 4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부산국제실내악컴피티션 갈라콘서트

- 9월 5일(목)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부산국제영상음악제 I, II

- 9월 14일(토), 15일(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 9월 21일(토), 22일(일) 오후 1:00,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차용·인용·주석 없는 원본의 탄생

한국춤 프로젝트 가마 <다시보다>



이상헌 총평론가

© 2018 한국문화재단

한 작품이 어느 정도 호평을 받았을 때, 그대로 재공연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 경우 대부분 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수정한다고 해도 근간을 유지하면서 디테일을 손보거나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을 고치는 정도에 그친다. 같은 주제로 연작을 만들 때는 재공연보다 더욱 까다롭다. 적어도 첫 작품 정도의 무게를 가지면서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영화나 연극에서 연작을 만드는 시도는 드물지 않은 데 비해 무용에서 연작을 시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영화처럼 편집으로 보완하거나 연극처럼 희곡 단계에서 검증할 수단이 없어서이다. 지난 7월 2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 올린 ‘한국 춤 프로젝트 가마’의 네 번째 공연 <다시보다>(안무 한지은)는 지난해 12월 공연한 <回>(안무 한지은)에서 다른 모티브를 다시 해석하였는데, 안무자가 자기의 이전 작품을 성찰한 결과물로 <回>와 <다시보다>는 제목은 달라도 연작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지은은 “작년 12월, 시간에 쫓기어 몸과 마음이 내달리기만 했던 작업이 흠도 많고, 틈도 많다. ‘시간’을 보겠다고 한 작품인데, 정작 보겠다고는 ‘시간’은 못 보고, 밀어붙이는 시간에 떠밀려버린 그때를 다시 본다”라고 고백한다. 지난해

<回>를 보았던 관객이라면 <다시보다>를 이해하는 폭이 남달랐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관없다. <다시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작품의 모티브는 ‘시간’이다. 제어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가 그 시간을 관조하려는 시도가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다. 설령 시간 흐름을 관조적으로 살필 수 있다고 해도 시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시간의 흐름을 관조하려는 의지는 시간 자체보다 자기 삶을 성찰하고, 삶에 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깨닫기 위함이다. 지난해 <回>에 관해서 ‘상대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시간을 삶에서 감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다시보다>는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은 <回>와 같은데, 그 속에 안무가로서 자기의 이전 작품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본 치열한 작가 정신이 녹아있는 점이 다르다.

<다시보다>에 <回>에서 보여 준 이미지와 동작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아예 다른 맥락에 얹어 놓았다. 한 부모가 낳은 자식이 닮았지만, 각기 다른 것처럼 <다시보다>와 <回>는 각자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형제 같은 작품이다.

두 작품이 같고, 다르다는 점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한지은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자기복제를 완강히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안무가가 여러 작품을 만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복제의 유혹에 빠진다. 자기복제는 거의 중력과 같아서 거스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안무가가 이 중력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주저앉는다. 자기복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지금껏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동작과 구성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 자기가 자주 쓰는 호흡법이나 동작을 엮어 내는 일, 그렇게 해서 독창성을 확보하는 고민과 노력의 과정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화가 고희의 작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의 독특한 붓 터치는 몇몇 초기 작품 외에 거의 같다. 그렇다고 해서 고희의 작품을 자기복제라고 평하지 않는다. 작품마다 맥락이 달라서이다. 한지은은 <回>에 이르기까지 스승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동작과 주제, 구성을 어느 정도 반복한 면이 있었다. 이 부분은 잘잘못을 따질 사항이 아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지은은 조금씩 스승의 그림자와 자기복제의 중력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주제의 추상성을 어떻게 이미지화할 것인지, 구성에서 여러 장면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할지,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었다. <다시보다>는 그렇게 고분분투한 성과이다. 그 성과가 이전 작품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용·인용·주석조차 없는 한지은 안무의 원본으로 탄생했다.

<다시보다>는 6장과 에필로그로 짜였다. 각 장을 암전으로 단절



©박병민

하지 않고, 연결 고리가 될 이미지를 남겨 놓아 내러티브가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연출하였다. 무대는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특성을 유지했다. 특히 무대 장치와 조명의 조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전달하려는 바를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미니멀 아트는 금속적이리만치 절제된 양식과 극도로 단순한 제작 방식을 채택해 작품의 실재와 본질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다시보다>는 미니멀 아트의 특성을 잘 갖추었고, 심지어 춤마저 미니멀하였다. 군더더기로 보일만한 동작을 최대한 배제해 주제를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렇다고 건조하지도 않았다. 비우면서도 가득 채운 텅 빈 춤만, 몰아치는 적막은 이미지가 시각에 들어오는 순간 상념이 뇌리를 찌르는 다층적 자극을 주었다. 춤을 비롯한 모든 요소가 시작부터 점층적으로 쌓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객의 몰입도 깊어졌다. 막바지에 이르러 극장 공간 구석구석까지 작품의 완결을 향해 치달는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다시보다>는 <回>에서 그려 낸 회화적 이미지를 망막에서 꺼내어 살갓에 닿는 감각으로 재탄생시켰다. 무대장치와 조명 등 단순화한 물리적 요소들에 잠재한 가능성이 최대치로 폭발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 우아한 폭발의 여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 생각이 떠오르는 중에 안무가 한지은의 확실한 탄생에 대해 곱씹어 보았다. 이제 막 40대로 진입하는 한지은이 안무가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생각 말이다. 그동안 부침이 있었던 창작이 비로소 높은 수준의 평균점을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부산 춤판의 기반이 약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준 높은 안무가의 탄생을 목격한 것은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다시보다>는 한 예술가의 치열함이 가져다준 기본 좋은 선물이다. 지난해 공연한 <回>를 성찰한 작품이 <다시보다>이기에 <또 다시보다> 같은 작품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지은의 고민과 성찰이 과연 어떤 작품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지 기대가 커지기만 한다.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2024 부산오페라 시즌 개막작 **오페라 나비부인**

일 시 | 8월 31일-9월 1일 토-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오페라 '나비부인'은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오페라로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돌아오지 않을 남편을 홀로 기다리다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초초상의 이야기를 푸치니 특유의 서정적이고 극적인 선율로 그려낸 작품이다.

- 지휘/이병욱(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 연출/김숙영
- 합창지휘/김강규 • 음악코치/김보미
- 연주/2024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

부산가야금연주단 제19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일 시 | 9월 1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부산가야금연주단 010-9669-7922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악기인 가야금을 통해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부산가야금연주단 정기연주회. 지난 2004년 창단된 후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발한 공연활동으로 가야금 음악을 널리 알려온 부산가야금연주단은 현재 최미란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가야금 전공자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2024년 위촉곡인 작곡가 박선영의 'YTO(You are The One)'와 가객 김광석의 대표곡을 가야금 합주곡으로 편곡한 'Missing U-김광석 메들리'를 들려준다.

- 예술감독/최미란 • 사회/신찬군
- 특별출연/가야금(최미란), 진민진(소아쟁), 홍열매(노래), 조현영(춤), 박선영(작곡)

부산작곡가협회 제53회 창작곡 발표회
가곡과 실내악의 밤 **자유로운 비상**

일 시 | 9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사무국장 권태우 010-7600-4514



1983년 창립된 오랜 전통의 유서 깊은 창작 음악단체인 부산작곡가협회의 2024년 창작곡 발표회. 부산작곡가협회는 창립 후 그동안 창작 지원 및 발표, 국내외 작품의 국제적 교류 지원, 저작권 옹호 및 관련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한 창작 교육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부산 지역 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가곡과 실내악의 밤'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김은진, 권태우, 조혜선, 이옥영, 최상화, 강영화, 이유희, 이승은, 황선영, 정수란 등 10인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25회 정기연주회 **가족**

일 시 | 9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여성문화회관 320-8332, 8343



부산여성문화회관 문화교실 수강생들로 구성된 미루샘합창단 정기 연주회.

미루샘합창단은 지난 1994년 창단된 후 지난 30년 동안 크고 작은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부산시민과 문화소의 계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우리가곡 외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침(가족이란)', '엄마', '아버지', '가족' 등 가족을 노래하는 가곡 및 가요를 들려준다.

- 단장/홍혜경
- 지휘/바리톤 한정현 • 피아노/신주옥
- 찬조출연/소프라노 김아름, 이진영, 양효정

김윤호 기타 리사이틀

일 시 | 9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블렌딩아트컴퍼니 070-7537-1248



입체적 색채감과 기교, 합리적인 연주법 등이 돋보이는 기타리스트 김윤호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시절, 리브라 기타 콰르텟에 합류하여 금호 클래식스에서 음반 발매와 함께 호주, 일본, 중국 등지에서 초청연주회를 가지며 앙상블리스트로 활동한 김윤호는 이후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 및 Konzertexamen(박사/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독일 Gevelsberg 국제기타콩쿠르 1위, 스페인 GSD 국제기타콩쿠르 3위를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김윤호는 이번 무대에서 소르, 바흐, 줄리오 레오니, 레오 브라우어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천사들의 노래**

일 시 | 9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3천원, S석 2천원(만 6세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창단 50주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50주년을 시작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천사의 노래'.

1부 무대에서는 한국 전통 리듬과 정서를 잘 반영한 박지훈 곡의 '반딧불 미사'에 이어 '비옥', '산유화', '코스모스' 등 한국가곡을 들려주며 2부에서는 필리핀, 아프리카, 미국 등 수준 높은 세계 합창음악이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박은주와 김태경 지휘자가 이끄는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이 특별출연,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 지휘/천경필(수석지휘자)
- 신디사이저/김보은 • 타악기/김진훈, 김은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6회 정기연주회
청춘 歌樂

일 시 | 9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 40년간 전통음악 계승·발전 및 창작음악 개발을 통하여 대중화, 현대화에 힘써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청춘 歌樂’.

전통음악에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감각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이번 무대는 신세대 소리꾼 오단해(판소리), 국악창작그룹 뮤르(MuRR), MZ세대 민요그룹 오미자(O!MZ)와 젊은 가야금 연주자 김소정이 이동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 지휘/이동훈(예술감독)
- 사회/신찬균(부산국악방송 PD)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념 음악회
The Sounds of Busan!

일 시 | 9월 8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국제신문 500-5222



올해로 창간 77주년을 맞는 국제신문의 시작과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한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념 음악회’.

2015년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아르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이어 국

내 신문사로서는 두 번째로 창단한 국제신문교향악단이 동서양의 소리가 공존하는 ‘부산의 소리’로 창간 77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한다.

국립부경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는 오홍근 초대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서양의 클래식음악과 한국의 전통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피리 연주자 김성준이 협연자로 출연하며, 월간 <객석> 편집장으로 있는 송현민이 해설을 맡아 관객과 만난다.

제2회 바리톤 안세범 독창회

일 시 | 9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안세범 010-2430-4214



부산성악가협회 회원이자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원, 서울 이마에스트리 단원, 해피양상블 단원, 산성교회 살렘찬양대 지휘자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 안세범 독창회.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리치니노 레피체 국립음악원, 로마 ARAM아카데미(성악 및 가곡), 이태리 II seminario di Norma 아카데미(합창지휘)를 졸업한 안세범은 이태리 파우스토 리치(FAUSTO RICCI) 국제콩쿠르 1위, 이태리 에우테르페(EUTERPE) 국제콩쿠르 3위에 입상하고 오페라 주역으로 다수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의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이소영 • 소프라노/안예린
- 해설/베이스 바리톤 박순기

에클라 트리오 20세기로의 여행

일 시 | 9월 8일 일요일 오후 3:30 **챔버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에클라 트리오 010-8272-5306



미국 유학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바이올리니스트 박주영, 첼리스트 김나래가 귀국 후 피아니스트 하승경과 함께 결성한 에클라 트리오의 무대.

그동안 여러 작곡가들의 피아노 3중주곡을 그들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해석, 관객들과 소통해온 에클라 트리오에는 이번 무대에서 유럽 작곡가들의 듣기 좋은 클래식과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조화롭게 구성, 다양한 연령과 취향을 지닌 관객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20세기로의 여행’이라는 테마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유럽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극장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일 시 | 9월 7일(토)-10월 12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9월 14일 공연없음),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 화-금요일 오전 10:00 단체공연 **사랑채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2천원(전 연령 관람가, 미취학 아동 부모 동반)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작동화 ‘신데렐라’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왕자와의 결혼이 아닌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신데렐라를 선보이는 ‘신

데렐라: 너의 뜻대로’.

특히 이번 작품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호의와 조력을 통해 완성되었던 여성의 성공담 대신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발견하고 수행하며 성취해내는 여성의 성장담을 담고 있다.

- 작, 연출/김지용

듀오지음 정기연주회

박정희&권준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9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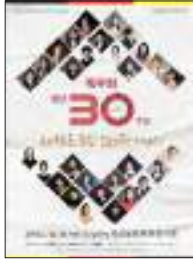
지난 2022년, 피아노 포핸즈의 다양한 음색과 다채로운 매력을 통해 더욱 신선하고 폭넓은 예술적 경험을 청중과 함께하고자 피아니스트 박정희와 권준이 결성한 듀오 지음의 무대.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독주와 앙상블 등 왕성한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박정희와 권준은 아트뱅크코리아 기획공연으로 2018년 슈베르트, 2019년 슈만, 2020년 베토벤, 2021년 드보르자크 기념음악회에서 환상적인 호흡과 연주력으로 피아노 듀오 앙상블의 깊은 매력을 보여주며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지난 202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듀오지음은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 스메타나, 멘델스존의 곡을 들려준다.

독우회 제56회 정기연주회
창단 30주년 기념 피아노로 듣는 오페라 이야기

일 시 | 9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독우회 010-4800-6224



1994년 9월, 독일에서 수학한 전문음악인들로 창단한 독우회 창단 30주년 기념무대. 30명의 피아니스트들이 '오페라로 듣는 피아노 이야기'라는 주제로 유명 오페라 서곡 및 아리아를 1 Piano 4 Hands, 2 Pianos 4 Hands, 2 Pianos 8 Hands 등 다양한 연주로 들려준다.

출연

박아연&이효연, 정윤하&정승연, 황정미&선지수, 신애정&이윤정&정보근&김미희, 조영은&이요한&전숙영&윤지선, 박윤정&조은주&박선재&강인경, 조상한&신현희&김은주&정희경, 박환희&김지민&이문숙&정병경, 금찬이&고은경&이수정&김문주

부산신포니에타 제105회 정기 연주회

일 시 | 9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부산신포니에타 010-2623-0448



전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주축으로 지난 1986년 창단된 부산의 대표 실내악단 부산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단원들과 함께 프랑스 툴루즈 국립오케스트라 종신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2022년부터 세계적인 명문 교향악단인 베를린 필의 객원단원으로 무대에 서고 있는 비올리니스트 신정안,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합창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한 첼리스트 이강현 등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 출신의 연주자를 초청,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음악감독/김영희

앙상블 구도 창단연주회

일 시 | 9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앙상블 구도 010-8548-4011



부산, 경남 출신의 청년 예술가 9명으로 구성된 앙상블 구도의 창단무대. 앙상블 구도(Ensemble 9°oodo)는 9명의 열정을 뜻하는 의미를 담은 9°, 감탄사로서의 'good-o', 미술에서의 조화와 배치를 뜻하는 '구도'라는 다중적 의미로, 앙상블 구도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재 현악기 4중주와 목관 5중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통 클래식을 구도만의 해석과 음악으로 더 많은 청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바이올린/이명환 • 비올라/권나영
- 첼로/이금민 • 더블베이스/박혜송
- 플루트/박한나 • 오보에/이현수
- 클라리넷/차호철 • 바순/김영두
- 호른/조성현

아티스떼 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아티스떼 앙상블 010-7771-1830



피아크라 앙상블 수석으로도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예빈과 트레프 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조영찬,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및 부산신포니에스트라, 부산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올리니스트 김지수, Foret noire 앙상블, Klirin 앙상블 멤버로 있는 첼리스트 신승엽, 그리고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이지은으로 구성된 아티스떼 앙상블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올해로 서거 120주년을 맞은 체코의 국민작곡가 드보르자크와 '근대 프랑스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포레의 작품을 통해 실내악의 매력을 전한다.

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 특별기획
릴레이 콘서트 시리즈 9 내가 만난 브람스

일 시 | 9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 010-9235-9356



2011년 창단된 부산, 경남 유일의 피아노음악 연구단체인 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의 무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외국에서 음악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부산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는 그동안 연주, 콩쿠르 뿐 아니라 피아노음악의 학구적 연구를 지향, 렉처 콘서트 시리즈를 꾸준히 개최해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특별기획 심포지움으로 기획된 릴레이 콘서트 시리즈로, 작곡가 브람스의 작품세계를 음악뿐 아니라 동시대 지인들의 육성을 통해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콘서트'로 꾸민다.

- 출연/심하정, 김진희, 이현욱, 정서미, 곽소정, 송대현, 정문정, 김은주, 이윤지, 정고은

테너 김희수 귀국 독창회

일 시 | 9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김희수 010-4813-0018



빛나고 서정적인 음색의 테너 김희수 귀국 독창회. 테너 김희수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 후 도독, 뷔르츠부르크 국립대학교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프랑스로 건너가 생모르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만점으로 졸업했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다 귀국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김희수는 이번 무대에서 헨델의 아리아부터 우리 귀에 친숙한 한국가곡, 게리벨의 초연 현대가곡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함께 수학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수가 함께 한다.

- 피아노/강우용
- 바이올린/김지수 • 해설/조윤환

아르떼 예술단 협동조합 제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시리즈

일 시 | 9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만 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아르떼 예술단 협동조합 070-8095-9426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열린 예술단으로 부산의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온 아르떼 예술단 협동조합의 정기연주회. 지난 2022년 9월 창립한 아르떼 예술단 협동조합은 그 해 창단음악회로 작곡가 김수현의 오페라 '장보고'를 한국 초연으로 무대에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경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전희범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에그먼트' 서곡을 시작으로 '트리플 콘체르토 작품 56', 교향곡 제3번 '영웅' 등 베토벤 시리즈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전희범
- 피아노/이보미 • 바이올린/최종완
- 첼로/이희수
- 연주/아르떼 오케스트라

루체살레 제6회 정기연주회
대한민국 창작 오페라 페스티벌

일 시 |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루체살레 010-5015-9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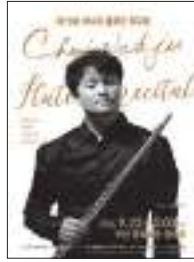
소프라노 김유섬 예술감독을 주축으로 부산, 경남지역의 성악가들로 구성된 루체살레 정기연주회.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처럼 부산, 경남지역 음악계의 빛과 소금을 담당하는 단체로 성장해나갈겠다는 루체살레는 지난 2021년 5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백현주의 '선비', '해운대', 박지운의 '운수 좋은 날', 이영조의 '황진이', 현석주의 '이중섭' 등 창작오페라 다섯 작품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지휘/이동신 • 예술총감독/김유섬
- 대표/김유진 • 연출/장진규
- 음악감독/심하정 • 해설/김성민

제19회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9월 22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최낙주 010-4536-2351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귀국 후 대구, 부산에서의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18차례 독주회를 가졌은 플루티스트 최낙주의 무대.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멤버로 활동한 최낙주는 독주회뿐 아니라 타 악기와와의 듀오연주회, 아나텍 챔버오케스트라, 겸북심포니, 대구아울로스, 서울아트플롯 등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최낙주는 현재 동이대 및 대학원, 부산예고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드뷔시, 바르톡, 윤이상, 피아졸라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장효진

소프라노 권소라 독창회

일 시 |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청아한 음색과 깊은 표현력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소프라노 권소라 독창회.

권소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를 졸업한 후 도이,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친 후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사랑의 묘약'으로 데뷔한 후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 다수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무대는 그동안 받았던 많은 사랑과 응원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하여 마련한 무대로, 헨델, 젤린스키, 애덤, 로날드, 정환호, 윤학준, 로시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 피아노/최영민
• 플루트/유주영

박순현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9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이지 클래식 010-8007-6851



화려한 테크닉과 독특한 음색, 음량을 지닌 피아니스트 박순현 독주회.

한양대학교 피아노과를 수석졸업한 후 동대학원 피아노과에 재학 중 도독, 데트몰트 음악대학 Master 및 최고연주

자과정을 졸업한 박순현은 재학 중 독일과 한국에서 수차례 연주회를 가졌으며, 다수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하여 음악적 깊이를 더했다.

국내에서는 국제마이스터콩쿠르, 창신대콩쿠르, 신라대콩쿠르, 부산음악교육회콩쿠르, 부산학생콩쿠르 등 여러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했으며, 스페인 Concurso Internacional de Musicas Maria Canals, 독일 Steinway Forderpreis Klassik OWL, 이탈리아 Recondite Armonie 등에서 입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피아노 트리오
전곡 시리즈 1 이진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9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비비아첼 746-2023



비비아첼 챔버홀 아카데미 대표이자 라이크 앙상블, GSE 대표, 부산더솔로리스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진 독주회.

미국 University of Cincinnati, College-Conservatory of Music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인제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이진은 그동안 다섯 차례 독주회 및 오케스트라 협연, 듀오, 앙상블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는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피아노 트리오 전곡 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작품 78'과 'F.A.E 소나타 다단조 작품 5' 중 '스케르초', 그리고 '피아노 트리오 제1번 작품 8'을 들려준다.

- 피아노/정은정 • 첼로/조명환

제10회 황미리 플루트 독주회

문학과 함께 하는 플루트 Story V
La muse et le poète

일 시 | 9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문화공감 0507-1490-8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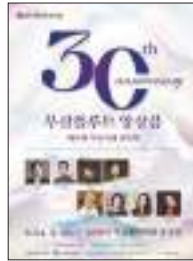
풍부한 음색과 맑은 소리로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플루티스트 황미리의 문학시리즈 다섯 번째 이야기.

시를 음악으로, 그리고 음악을 시로 표현하여 그 주체의 내면에서 흐르는 정서적 교감, 영혼의 울림을 보여줄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곡가인 그리프스의 '시(Poem)'를 비롯하여 생상스의 이중협주곡 '뮤즈와 시인', 슈베르트의 '시든 꽃 주제에 의한 변주곡', 그리고 미국 작곡가이자 플루트 연주자인 발레리 콜먼의 다문화적 모티브를 혼합하여 만든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시(2018)'를 들려준다.

- 피아노/정아름 • 첼로/김기도 • 해설/김병기

부산플루트앙상블 제30회 기념 특별연주회

일 시 | 9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부산플루트앙상블 010-2459-4147



1992년 부산 최초의 플루트 앙상블로 창단한 후 30년 넘게 꾸준히 활동해오며 플루트 발전에 앞장서는 부산플루트앙상블의 제30회 기념 특별연주회.

부산플루트앙상블은 매년 한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초청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정기연주회 30회를 기념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플루트 선율의 매력을 전하는 다채로운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연주/박찬엽, 장극태, 정옥경, 조진학, 도진경, 이진향, 김하나, 장정림

제3회 김대훈 색소폰 독주회 Mirage

일 시 | 9월 29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김대훈 010-8567-3502



현재 JLV Sound Paris, Nonaka Selmer Korea 아티스트이자 일방통행 색소폰 앙상블, Sfk 멤버로 활동중인 색소포니스트 김대훈 독주회. 중앙대학교 음악대학과 벨기에 브뤼셀 왕립 음악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김대훈은 스웨덴 North 국제 콩쿠르 1위, 전국 음악대학 심포닉 밴드 콩쿠르 1위,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 1위 등 국내외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제43차 금호 영 아티스트, 2021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대훈은 현재 중앙대학교, 계명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브니엘예술고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심정은 • 해설/최삼중

마비노기 20주년 오케스트라 콘서트 별을 위하여

일 시 | 9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0만5천원, S석 8만5천원
A석 6만5천원
문 의 | ㈜스튜디오뮤직 02-2658-3546



탄탄한 스토리와 마비노기 속 명곡들을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사운드로 만나보는 마비노기 20주년 오케스트라 콘서트 '별을 위하여'.

켈트 신화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온라인 롤플레이 게임으로, 고대 북유럽의 음유시인들이 전하는 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마비노기'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음악을 다른 유저들과 공유하며 연주할 수 있는 색다른 매력으로 다른 게임과 차별점을 두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20년간 마비노기가 품어온 스토리와 OST를 60인조 편성의 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로 만날 수 있다.

- 지휘/김유원 • 연주/아르츠심포니오케스트라

상지건축 창립 50주년 기념 북 콘서트 오! 부산

일 시 | 9월 26일 목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상지건축 240-1526



그동안 도시를 디자인하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역사성과 특수성에 주목해온 상지건축이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까지도 함께 생각하고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북 콘서트 '오! 부산'.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은 상지건축이 국제신문과의 협업으로 마련한 '오! 부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신문 지면을 통해 기획시리즈로 연재되었으며, 동일 기간에 상지신문학아카데미를 통해 강의로 진행되고 올해 6월 단행본으로 출간된 바 있다.

이번 북 콘서트에서는 참여 필진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 진행/고영란(상지건축 대외협력본부장)
- 사회/조봉권(국제신문 부국장)

연극 슬픔이 찬란한 이유

일 시 | 10월 3일-4일 목-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3만원(14세 이상 관람가, 예매시 할인)
문 의 | 문화판 모이라 010-9701-07123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문화파 모이라의 창작극 '슬픔이 찬란한 이유'.

2014년 창단 후 '거기, 두루마일이 있다'부터 '세상에 하나뿐인 부동산', '올드 브라더미싱',

'119 옆 낙원빌딩', '목대평으로부터' 등 상임연출가이자 경성대학교 교수인 김숙경의 창작극을 무대에 올렸던 문화판 모이라는 그동안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작품 내용과 주제 의식, 그리고 대중적인 소통 방식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창단 10주년 기념 레퍼토리는 2021년 전국 창작희곡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올해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지원사업 '올해의 포커스 온'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작, 연출/김숙경(경성대학교 교수)

기타공연장

울속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17일 공연 없음)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3일(제50회) 작은밤의 선물 '황혼의 세레나데'
 작은 밤, 저녁의 기본 전환을 위해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기악양상들과 성악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명품 소야곡들로 구성, 장리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음악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10일(제51회) 클래식 토크

시대와 음악을 주제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 위에 음악적 요소를 향유할 수 있는 '클래식 토크'.

24일(제52회) 피아니스트 홍선화 독주회 'My Playlist'

뉴욕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오던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 홍선화가 서부산 지역의 관객과 처음 만나는 무대.

제95회 울속도 명품콘서트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나의 인생, 나의 음악

일 시 | 9월 4일 수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가을을 맞아 정경호 아름다운 노래들로 꾸미는 울속도 명품콘서트. 이동신이 지휘하는 시노두스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소프라노 김유섬, 김유진, 이윤경, 테너 김준연, 이범주, 바리톤 최중우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성악가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거나 의미 있는 노래들을 이야기와 함께 들려줌으로써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연주를 맡은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지난 1995년 창단된 후 진지한 음악 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 부산, 경남의 음악발전과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임현정과 버지니아 드쥬스
 피아노 듀오&진로 토크콘서트

일 시 | 9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5만원(초중고 본인 80%,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50% 할인)
문 의 | 다나기획사 010-8078-3473



프랑스에서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20년지기 친구 임현정과 버지니아 드쥬스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임현정은 국내 민간인 단체로 최대 규모인 인터스텔라 오케스트라를 창립하여 지휘자, 감독, 기획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버지니아 드쥬스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 극장의 부지휘자이자 합창단 지휘자 및 피아니스트, 그리고 교육자로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음악 전공자를 위한 무대로 세계적인 두 아티스트의 연주와 더불어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

9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18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금정문화회관이 매주 수요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하는 상설 무대.

4일(제864회) 로더과르텟(L'odeur Quartet)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김헤지, 비올리스트 김규, 첼리스트 이호찬, 피아니스트 한희준 등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솔리스트로 구성된 로더과르텟의 무대.

프랑스어로 향기를 뜻하는 'Odeur(오뒤풀)'에서 이름을 따온 로더과르텟은 이번 무대에서 구스타프 말러의 유일한 실내악곡인 '피아노 4중주 가단조'를 비롯하여 다양한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피아노 3중주 제1번 '비가'
 말러/피아노 4중주 가단조

김종완/바다의 탕고
 드보르자크/피아노 4중주 제2번 작품 87
 • 특별출연/김종완(작곡, 반도네온)

11일(제865회) 진혜빈 바이올린 독주회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부산콘서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레이디스필 앙상블, 무지카비바 앙상블, Ensemble

Fleur 멤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진혜빈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한 후 도독,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최고점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진혜빈은 그동안 끊임없는 학구열로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기량을 인정받으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 제2번 작품 50
 비에니아프스키/구노의 '파우스트' 주제에 의한 화려한 환상곡 작품 20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25일(제866회) 황한나 제7회 해금 독주회 '해금, 피아노와 노래하다'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이자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이수자, 국가무형유산 가사 전수자로 있는 황한나 해금 독주회.

해금은 전통악기 중에서도 서양악기와 함께 연주가 많이 되는 악기로, 특히 피아노와 연주하도록 창작된 곡이 많다. '해금, 피아노와 노래하다'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199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해금과 피아노의 협연을 통해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이 경계를 허물고 어떠한 소리로 표현되었는지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김영재(안지영 편곡)/적념(1989년)
 이정면/활의 노래(2007년)
 임준희(김현섭 편곡)/혼불V-시김(2013년)
 박한규/청배(2024 위촉초연)
 • 작곡, 피아노/박한규
 • 피아노/이연정
 • 사회/신찬균(부산국악방송 PD)

게네랄파우제 9월 공연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7일은 오후 8:00), 19일(목) 오후 8:00 **게네랄파우제**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9월 무대.



6일(금) 오후 8:00 트레프 플룻앙상블과 함께 듣는 Series 'Romance 1'

애니메이션 및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애틋한 사랑을 OST 연주로 들려주는 트레프 플룻앙상블의 첫 번째 시리즈 '로맨스'.

- 플루트/김동효, 김가영, 조영찬, 이진희, 하다희
- 피아노/강민희 • 타악기/왕진호

7일(토) 오후 8:00 이달현 재즈트리오



볼꽃 카리스마 기타리스트 이달현과 시간을 연주하는 타임키퍼 드러머 윤혁성, 현란한 베이스 연주가 돋보이는 마성의 베이시스트 박지원, 그리고

재즈와 팝을 아우르는 보컬리스트 Ellie가 펼치는 재즈의 향연.



12일(목) 오후 8:00 Liberamente Special Tap

보컬 문수진, 피아노 정경수 등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재즈듀오 리베라민트와 리베라민트+1으로 활동하며 좋은 에너지를 보여준 색소포니스트 손태호, 베이시스트 노태현, 그리고 탭댄스 강영민이 합류, 재즈의 리드미컬한 재미를 선사한다.



13일(금) 오후 8:00 03 시절, 계절 Autumn 가을편지

게네랄파우제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해온 솜블리 트리오의 2024년 계절 프로젝트.

가을로 접어드는 9월, '가을편지'라는 제목으로 애수 짙은 멜로디가 인상적인 낭만주의 음악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혜경 • 비올라/김가민



14일(토) 오후 7:00 트레프 현악앙상블과 함께하는 4인 4색 Salon Concert

트레프 현악앙상블과 관악기 연주자 4인의 협연으로 펼쳐

지는 특별한 무대.

- 바이올린/이예빈, 손연수, 안지해
- 비올라/고효림 • 첼로/곽지연
- 협연/클라리넷 강철주, 플루트 김동효, 오보에 문동원, 트럼펫 박준웅



19일(목) 오후 8:00 월간 민주신 'Cha Cha Together!'

재즈피아니스트 민주신이 매월 한차례 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와 함께 그들의 음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는 월간 민주신 9월 무대로, 퍼커셔니스트 이영훈이 함께 한다.



20일(금) 오후 8:00 JazzNory, Jazz and Play

우리에게 익숙한 재즈곡들을 형식별로, 악기별로 소개하는 재즈스토리 콘서트.

30년차 재즈드러머인 리더 허여정을 중심으로 부산과 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재즈연주자들이 함께한다.

- 기타/윤준명 • 피아노/김태준
- 베이스/김지수 • 드럼/허여정
- 스토리·아코디나/김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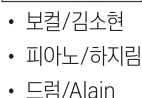
21일(토) 오후 7:00 Autumn Breeze

보컬 최은아, 피아노 장세연, 베이스 배우철이 들려주는 가을밤의 낭만.



27일(금) 오후 8:00 기분 Jazzy네

김소현 재즈퀸텟이 들려주는 기분 좋은 재즈의 향연.



28일(토) 오후 7:00 클래식 음악, 그리고 영화 히든 씬

- 보컬/김소현
- 피아노/하지림
- 드럼/Alain • 베이스/조영식

프로그램

꿈같고 꿀같은 일요일, Don't know why, On the sunnyside of the street, Misty, Autumn leaves, Desperado, Try your wings, Feel like makin' love, Quizas, Quizas, Quizas



28일(토) 오후 7:00 클래식 음악, 그리고 영화 히든 씬

피아니스트 홍여진, 강민희가 함께 준비한 기획공연.

미국의 현대음악 작곡가이자 영화 음악가인 아론 코플랜드의 이론을 토대로 영화 속 클래식음악을 감상한다.

을속도문화회관 청년예술공감

일 시 | 9월 6일(금), 19일(목) 오후 7:30
을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속도문화회관 220-5811~4



지역의 청년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을속도문화회관 청년예술공감.

6일(제13회) 인상주의 로의 이끌림

인상주의 음악중에서도 청중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편안한 곡들을 이끌림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

하프를 중심으로 피아노 독주뿐 아니라 독특한 구성의 트리오, 콰르텟 연주로 만날 수 있다.

19일(제14회) Re-start 무지카아니베의 6번째 이야기

지난 2016년 창단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온 무지카아니베는 이번 무대에서 'Re-start(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곡들로 관객과 만난다.

2024 두레라움 토요일야외콘서트 가을 그리고 가곡 이야기

일 시 | 9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한 달에 한 번, 탁트인 야외극장에서 수영강변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2024 두레라움 토요일야외콘서트 9월 무대.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지휘하는 두레라움 윈드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 그리고 가곡 이야기'라는 주제로 가을의 서정을 노래하는 한국가곡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 지휘, 진행/문화유목민 정두환
- 연주/두레라움 윈드오케스트라

9월 스페이스움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움의 9월 무대.



6일(제557회) 우리가 사랑한 영화 속 재즈

재즈피아니스트 강혜인이 기획한 '우리가 사랑한 영화 속 재즈' 시리즈 첫 번째 무대.

스웨덴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팝 그룹 ABBA의 곡으로 만든 동명의 주크박스 뮤지컬 '맘미아 (Mamma Mia)'의 OST를 강혜인 Quintet의 연주로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여전히 사랑받는 ABBA의 음악을 재즈로 새롭게 편곡, 기존의 익숙한 음악과는 차별성을 두면서 재즈를 처음 접하는 사람뿐 아니라 즐겨듣는 사람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다.

- 재즈피아노, 작·편곡/강혜인
- 베이스/심규환 • 드럼/홍영호
- 색소폰/손대호 • 보컬/정세미

13일(제558회) 클레다 현악사중주 '선율의 대화'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이자 팀의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진과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서영희(바이올린), 단원 김유미(첼로), 나윤채(비올라 객원)로 구성된 클레다 현악사중주의 무대.

- 클라리넷/최지혜

20일(제559회) 초가을의 비엔나 산책



부산현대음악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진희, 강대현, 허부성, 박지은의 무대로, 모차르트와 베토벤, 슈베르트의 곡으로 초가을의 서정을 전한다.

27일(제560회) 최은아 Quartet 'Autumn in Jazz'



특유의 따스함과 감성깊은 재즈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최은아를 중심으로 한 최은아 Quartet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정통 스탠다드 재즈 음악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편곡으로 들려준다.

다원국악관현악단 창단 10주년 오래된 여정 새로운 물결

일 시 | 9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다원국악관현악단 010-7323-6056



국악의 자변확대와 전통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온 다원국악관현악단 창단 10주년 기념공연.

다원국악관현악단은 지난 2013년 창단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공연장-예술단체 지원사업, 예술교육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제10회 정기연주회를 겸한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부산의 국악이 걸어온 여정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국악을 이끌어갈 차세대 예술가를 발굴, 연주기회를 제공한다.

제10회 정기연주회를 겸한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부산의 국악이 걸어온 여정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국악을 이끌어갈 차세대 예술가를 발굴, 연주기회를 제공한다.

- 지휘/한영길(예술감독)
- 단장/송강수
- 대표·연출/이수현

바리톤 김기환 독창회 詩中有畫 시중유화

일 시 | 9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김기환 010-8742-6800



창원대 졸업 후 진해시립합창단(현 창원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다 도이, 리치니오 레피체 국립음악원 오페라과 최고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창원대 지휘 박사과정에 있는 바리톤 김기환 독창회.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잔니 스키키'로 데뷔한 후 로마 3대 극장인 기오네극장에서 현대오페라 '엔니오 뿌리노' 주역으로 출연하는 등 이탈리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귀국, 오페라 '리콜레토'로 국내 데뷔한 김기환은 지난해 한국초연작인 프로코피에프 오페라 '막달레나' 주역으로 무대에 서는 등 다수 오페라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 피아노/류신열
- 소프라노/이지은 • 아트텔러/정인지

작곡그룹 An-ti Stimmung 2024년 제24회 작품발표회 미래와 음악

일 시 | 9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작곡그룹An-tiStimmung010-8212-0222



현존하는 최고의 작곡가들로 구성된 작곡그룹 An-ti Stimmung 2024년 작품발표회.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9명의 독특하고 창의적이며 세계적인 아이디어로, 현대무용과 함께 영상, 나레이션, 실내악, 전자 음향 등 다양한 장르와 어우러진 창작곡들이 세계초연으로 연주된다.

- 대표/조희주(부산대학교 명예교수)
- 회원/정수란(부산대학교 교수), 진영민(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박기섭(대구교육대 교수 역임), 진소영(동아대학교 교수), 정지영(한세대학교 교수), 주창근(부산전자음악협회 회장), 황선영(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김유리(영남필 전주작곡가)

동아피아노포르테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9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동아피아노포르테 010-9339-2790



동아대학교 피아노 전공 동문들로 구성된 동아피아노포르테가 창단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동아대학교 피아노 전공 교수들을 비롯하여 대학

원생, 그리고 졸업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문 연주자들이 낭만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통해 창단 20주년을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해설/이정아
- 연주/김영숙, 전소영(회장), 김민희, 박소미, 박정연, 주은정, 백여영, 김정화, 김미래, 도예찬, 김하빈, 최영주, 김유미, 허윤영, 박현지, 박민주, 박민영, 김정은, 최지은

퓨전국악밴드 경지
보물섬을 찾아 떠나보세!

일 시 | 9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202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작으로 선정된 퓨전국악 밴드 경지의 '보물섬을 찾아 떠나보세!' 판소리와 밴드음악을 접목한 개성 있는 사운드로 주목받는 퓨전국악 밴드 경지는 리더 오현을 주축으로 건반과 기타, 드럼, 베이스의 양악기와 한국의 독보적인 음색을 전하는 피리, 보컬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6명의 아티스트가 뭉쳐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역사를 소재로 한 창작곡을 발표하며 기존 국악과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지는 이번 무대에서 그들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울속도문화회관 K-POP 시리즈
소향 with 가을석양 열린음악회

일 시 | 9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울속도문화회관이 7월부터 선보이고 있는 'K-POP 시리즈' 9월 무대. 7월 '박완규와 아이스커피 콘서트', 8월 '테이와 구바이 씬머 콘서트'에 이어 9월에는 '소향 with 가을석양 열린음악회'로, 독보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수 소향을 초청, 오케스트라와의 콜라보 무대를 선사한다. 세계적인 보컬리스트로 인정받고 있는 소향은 블루스, 포크, 재즈부터 R&B, 팝, 발라드, 댄스, 락을 비롯한 팝 음악들과 가스펠, 펄페라, 뮤지컬, 심지어 힙합, 민요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장르 소화력을 갖추고 있다. 소프라노 왕기현, 테너 최원갑 등 부산 최고의 연주력을 자랑하는 연주자들이 함께 출연, 석양이 아름다운 울속도에서 가을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 오페라 오페라야 놀자!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일 시 | 9월 21일 **토요일 오후 2: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만 4세 이상 관람,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오페라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울속도문화회관 '오페라야 놀자!' 네 번째 무대. '오페라야 놀자!'는 지난해 6차례 공연을 통해 연속 매진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은 시리즈로, 특히 부산시 캐릭터 부기가 오페라에 출연하며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9월 무대에서는 유쾌한 희극적 요소가 결합된 18세기의 대표적인 오페라 부파로 꼽히는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을 선보인다.

- 기획, 총괄/윤보영 • 음악감독/방은승
- 소프라노/박예은 • 테너/김성
- 플루트/황미리

클래식과 떠나는 음악여행
Operarte 미국편

일 시 | 9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콘서트가이드 김성민과 함께하는 오페라페 시리즈는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으로 마니아층을 보유한 해운대문화회관만의 특별한 콘텐츠이다. 음악과 함께 각 나라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이번 세 번째 무대 '미국편'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재즈, 클래식 등 여러 대중음악을 아우른 작곡가로 평가받는 거쉬윈과 현대 재즈 피아니스트의 거장이라 불리는 칩 코리아, 미국의 천재 음악가 레너드 번스타인의 대표곡을 들려준다.

- 콘서트가이드/김성민
- 바이올린/김경미, 이기에 • 비올라/이우림
- 첼로/예지영 • 소프라노/박나라
- 테너/문한솔 • 피아노/김란

2024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9월
감독의 작품세계를 채색하다 PART II: 허진호

일 시 |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한국영화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화음악감독을 중심으로 매월 색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영화의전당 11시 영화음악콘서트. 9월은 영화음악가 조성우와 영화감독이 만나는 '감독의 작품세계를 채색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멜로영화의 거장 허진호가 함께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대학 친구인 허진호와 조성우의 40년 우정과 함께 그들의 영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며, 조성우가 음악감독을 맡은 허진호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외출', '천문'의 테마곡을 들려준다.

- 연주/코리안 필름 체임버 오케스트라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클래식 라디오 CINEMA CONCERT
세상을 사로잡은 영화음악

일 시 | 9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일상 속에서 다양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이번 무대는 클래식 라디오의 시네마 콘서트로, '세상을 사로잡은 영화음악'이라는 테마를 통해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인기 영화 속 메인 테마곡들부터 최근 영화들의 배경 음악들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재즈피아니스트 조수임의 콜라보를 통한 새로운 편곡으로, 한 시대의 추억과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음악으로 관객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물한다.

- 콘서트 가이드/김일항

을숙도문화회관 굿모닝콘서트
비파로 듣는 광화문 연가

일 시 |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1만5천원(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자연 속 정원에 자리잡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공연을 즐기는 굿모닝콘서트 9월 무대로, 중국을 대표하는 비파 연주자 예웨이양의 무대가 펼쳐진다.

현재 한국에서 비파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비파는 지금도 찬란한 음색을 자랑하며 다양한 곡들이 연주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삼국시대 삼현(가야금, 거문고, 비파)에 속할 만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비파를 예웨이양의 비파 연주를 통해 기억하고자 한다.

예웨이양은 중국, 일본 등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비파연주자로, 이번 무대에서는 광화문 연가, 옛사랑, 마이웨이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가요, 팝송 등 다양한 곡을 비파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북 씨네 콘서트
책, 영화, 음악이 하나되다

일 시 | 9월 29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만 5세이상 관람가)
문 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송정애지리한문화공간'첼리스트의 서재'가 새롭게 마련하는 북씨네콘서트.

책과 영화, 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어연히'(어디서든 연주자 가능한 히든 플레이스) 대표인 첼리스트 이명로와 그라스

네 앙상블 단장이자 '첼리스트의 서재' 대표인 피아니스트 박민희, '어연히' 부대표 플루티스트 신혜원, 해운대 인기 버스커 '꾸꾸는 요리사'로 유명한 아코디언리스트 심성훈,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첼로 단원 이석민으로 구성된 그라스네 앙상블이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 속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부산반주연구회 제1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반주연구회 010-8852-448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160주년을 맞아 그의 작품들로 마련된 부산반주연구회 정기연주회. 바그너 이후 독일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 꼽히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독일 후기 낭만파의 마지막을 대표하는 대작곡가로, 자신만의 뛰어난 작곡기법으로 많은 후기낭만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트라우스의 대표적인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발췌하여 편집한 1Piano 4Hands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호른 콘체르토 등 기악곡과 그의 널리 알려진 성악곡을 재조명한다.

- 피아노/안산애, 김주리, 윤민화, 이화영선, 한혜진, 유혜진, 김경미, 박필은
- 게스트/바이올린 정진경, 첼로 김경수, 호른 박용민, 소프라노 박현진, 테너 김충희, 바리톤 박찬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일 시 | 5월 1일(수)-Open run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월-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 장 료 | 전석 6만원
문 의 | 극단 지우 664-8400



스테디셀러극으로, 이번에 센터 KNN타워에 위치한 KNN시어터에서 장기상연에 들어간다.

노숙인이었던 주인공 독도가 올웨이즈 편의점 사장 염여사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화가는 과정을 그린 이번 작품은 프로듀서 황기현, 연출 홍현우, 음악감독 김은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탄생한 웰메이드 뮤지컬드라마로, 감각적인 선율과 극의 정서를 반영한 가사로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전한다.

한국·중국·일본 '발악(發樂)콘서트'

일 시 | 9월 28일 토요일 오후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 장 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중국, 일본. 역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 팽팽한 관계를 유지하는 3국의 음악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발악 콘서트'.

공연명인 '발악(發樂)'은 음악으로 두드러져 나타난다는 뜻으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한국음악의 아름다움, 중국음악의 장대함, 일본음악의 섬세함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오사카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일교포2세 소프라노 김계선, 일본문화청 예술제상을 수상한 오사카음악대학 특임교수인 실력파 고토연주자 카타오카 리사, 장성악단 대표로 중국을 대표하는 비파 연주자 예웨이양이 출연, 그동안의 색깔 있는 무대를 펼친다.

연극 새빨간 거짓말

일 시 | 6월 14일(금)-9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만 13세 이상 관람)
문 의 | (주)플레이더 부산 1600-0316



오감을 자극하는 스티러 연극 '새빨간 거짓말'.

완벽주의자로 직업, 환경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리. 어느날 그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면서 그녀의 주변 사람들 모두가 용의선상에 오른다. 유리에게 빼앗긴 게 많은 후배 마연정, 그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남자친구 김주원, 그런 그들의 주위를 맴돌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정체불명의 그, 모두가 그녀에게 복수할 이유가 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건은 미국 속에 빠지고 마는데... 과연 범인은 누구이며 왜 그랬을까?

연극 '새빨간 거짓말'은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 불가능한 전개, 실 틈 없이 조여오는 긴장감으로 차원이 다른 공포를 선사한다.

연극 **머쉬멜로우**

일 시 | 8월 8일(목)-10월 31일(목)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30, 5:00(9/16일-9/18일 오후 5:00,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1588-2757



착한 도둑(?)의 요절복통 코미디극 '머쉬멜로우'.

능력 없어 회사에서 짤렸지만 힘든 일은 싫어하는 남편. 연애할 때는 이것저것 다해줬지만 무능력한 남편이 싫은 아내. 결혼한 지는 이제 일 년밖에 안됐지만 남편과 아내는 이혼을 이야기한다. 젊은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었으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도둑. 크게 한탕하기 위해 부자집을 털려다 일이 꼬이면서 이들 부부의 집을 털게 된 도둑은 본의아니게 신혼부부의 화해를 돕게 되는데...

신혼부부와 도둑이 펼치는 한바탕 해프닝을 통해 한 여름 무더위를 강력한 웃음으로 날려버린다.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두 번째 시간**

일 시 | 9월 3일(화)-8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2:00, 6:00
어댑터 씨어터 2관
입 장 료 | 전석 3만원(1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010-4868-2862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부산 대표로 참가한 극단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극단 배

관·공)의 창작극 '두 번째 시간'.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의문사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의 어두운 면과 평범한 삶의 간극을 탐구한다.

특히 기록된 역사가 미처 담지 못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환기하고, 동시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죽음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 작/이보람 • 연출/주혜자
- 출연/박찬영, 엄지영, 김진주, 박성호, 김정환, 김영화

연극 **내 웨딩케이크는 누가 먹어버렸나**

일 시 | 9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7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624
입 장 료 | 전석 3만원(만 1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예술도깨비 010-4868-2862, 010-4868-2862



달콤했던 웨딩케이크 같은 두 부부의 결혼생활에 관한 이야기, 연극 '내 웨딩케이크는 누가 먹어버렸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소극장 624가 선보이는 극단 전망의 '내 웨딩케이크는 누가 먹어버렸나'는 중년부와 노년부부의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에게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특히 작품 속 두 쌍의 부부를 통해 부부간의 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나 부부가 함께한 시간의 길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이야기 한다.

- 작/김나영 • 연출/심영민

뮤지컬 **수박수영장**

일 시 | 9월 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문 의 | ㈜더화랑이엔티 1800-6567



무더위를 즐기는 기발한 상상력 뮤지컬 '수박수영장'.

가장 주목받은 그림책 작가로 꼽히는 안녕달의 스테디셀러 원작 그림책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구현한 '수박수영장'

은 바쁜 부모님을 도우려다 의도치 않게 사고뭉치가 된 주인공 '진희'가 여름방학을 맞아 외가에 놀러가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할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어 속상해 하던 '진희'는 길을 잃은 수박 씨앗을 만나 '수박수영장'에 도착하고,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며 스스로를 빛나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이야기로 웃음과 감동을 준다.

연극 **러브레터**

일 시 | 9월 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14세 이상 관람)
문 의 | ㈜전공이엔티 1522-2061



편지를 매개로 50년에 걸쳐 서로의 인생을 나눈 동화 같은 로맨스극 '러브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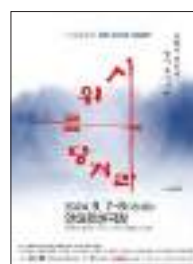
미국 극작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A. R. 거니'의 작품을 원작으로, 1988년 초연 이후 통

행크스, 멜 깁슨, 시고니 워버, 브룩 실즈 등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당대 배우들이 출연했고 현재까지 30개 언어로 공연되고 있는 스테디셀러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1995년 초연됐으며, 배우 장현성, 배종옥, 박정자 등이 거쳐 갔다.

이번 무대에서는 무대와 매체를 넘나들며 밀도 있는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 정보석, 박혁권, 하희라, 유선이 그 어느 무대에서도 볼 수 없는 가슴 설레는 로맨스를 선사한다.

극단 자유바다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시위를 당겨라**

일 시 | 9월 7일(토)-8일(일) 오후 3:00
안데르센극장
입 장 료 | 전석2만원
문 의 | 안데르센극장 728-3909



1994년 창단 후 시대와 사회상을 담은 창작극 위주의 작품을 선보여온 극단 자유바다가 창단 30주년 기념공연으로 선보이는 창작극 '시위를 당겨라'.

특히 이번 작품은 극단 자유바다가 25년 전 첫 선을 보였던 작품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물질 만능과 개인주의가 더욱 팽배해지고 정의와 진실이 외면당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관객들에게 다시금 되묻는다.

- 작, 연출/정경환
- 출연/권혁철, 최재민, 임선미, 김지연, 박윤희, 강규민, 권영호, 천승민

뮤지컬 **신바람 삼대**

일 시 | 9월 12일(목)-2025년 1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9/16일·9/18일 오후 3:00,
 9/17일 오후 6:00, 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15세 이상 관람)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대학로의 스테디셀러 '바람난 삼대'의 업그레이드 버전 '신바람 삼대'.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삼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그야말로 남자들의 전쟁이다. 어느 날, 세 남자는 집이 빈다는 기막힌 정보를 얻게 된다. 바글바글하던 집이 오늘날만큼 텅 빈 공간이 되는 것. 세 남자는 각자 사랑하는,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려는 여자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요절복통의 해프닝이 펼쳐지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번 무대는 특히 배우 1인이 3역 이상의 멀티 역할을 맡아 고강도 웃음을 선사한다.

연극 **배소고지 이야기**

일 시 | 9월 21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 장 료 | 전석 2만원(중학생이상 관람가)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2023 대한민국연극제에서 대상과 연출상, 최우수연기상, 연기상 등 4관왕을 수상하고 그 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국제청년연극제 대상과 여자연기상, 2024 루마니아 바벨 페스티벌 초청작에 빛나는 화제의 연극 '배소고지 이야기'. 한국전쟁 당시 전북 익실군 옥정호 인근 배소고지에서 벌어진 양민학살 생존자의 구술 기록을 토대로 창작한 이번 작품은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선택과 그로 인해 달라지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이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삶에 남아있는 전쟁과 긴 기다림을 이야기한다. 특히 역사의 전면에서 소외된 여성의 목소리로 전쟁을 복기했다는 점에서 기존 전쟁극과 차별화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작/진주 • 연출/김희영

어린이 마술극 **리온의 신비한 과자상점**

일 시 | 9월 20일-21일 금-토요일 오후 1:30,
 3: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3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와이엠케이 엔터테인먼트 010-7713-1461



박영준 마술사와 함께하는 신기한 마술세계 '리온의 신비한 과자상점'. 신비한 과자 상점에 놀러온 아이들에게 점장 리온이 과자 상점의 신비한 과자와 그 과자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순하고 명확한 스토리 속에 전문 마술 공연감독이 디자인한 고품질 마술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이 관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마술사와 함께 무대를 꾸미는가 하면 공연에 등장하는 맛있는 과자는 무대가 끝난 후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제공된다.

박영준 마술사는 그동안 명량대첩제 마술공연, 계룡지역 공감 어울림축제, 인도 롬바이 서부 해군사 공연, 태국 파타야 함상 리셉션, 천안 흥타령 축제 프린지 공연, 세종시 게릴라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비주얼 씨어터 **노인과 바다**

일 시 | 9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7:00,
 22일 일요일 오후 4:00
부산시민공원 백산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8세이상 관람가)
문 의 | 극단 판플 010-2654-4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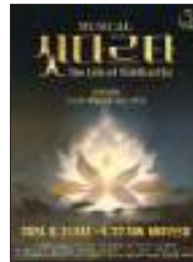


노벨문학상 수상자 헤밍웨이의 명작 '노인과 바다'를 홀로그램 연극으로 선보이는 극단 판플의 특별한 무대. 헤밍웨이의 마지막 소설이자 대표작인 '노인과 바다'는 작가 고유의 소설 수법과 실존 철학이 집약된 헤밍웨이 문학의 결정판으로, 먼 바다에서 펼쳐지는 노인의 고독한 사투를 통해 실존적 투쟁과 불굴의 의지를 절제된 문장으로 강렬히 그려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무대의 3면을 가득 채우는 홀로그램 미디어 아트의 화려한 영상과 역동감 넘치는 청새치 퍼핏(puppet, 인형, 꼭두각시)이 어우러져, 인생을 향해가는 노인의 여정이 더욱 생생하고 몰입감 있게 전달된다.

뮤지컬 **숫타르타**

일 시 | 9월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입 장 료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문 의 | ㈜엠에스엠시 1661-4191



인류 최초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일대기를 따라 펼쳐지는 야심찬 서사시 '숫타르타'. '숫타르타'는 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코타마 숫타르타가 왕중의 왕인 전륜성왕이 되거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될 두 가지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으나 우연히 궁 밖의 사람들의 삶을 목격하고 출가를 결심, 다양한 고뇌와 고행을 거쳐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그린 창작뮤지컬이다.

올해 여섯 번째 시즌으로, 지난 2019년 초연 이래 화려한 무대와 퍼포먼스, 완성도 높은 연출력으로 종교를 넘어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낸 순수 창작뮤지컬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뮤지컬 **바다 100층짜리 집**

일 시 |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29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부산홀**
입 장 료 | 전석 7만원(20개월이상 관람가)
문 의 | 탑월드 1800-7672



뜨거운 여름방학을 맞아 신나는 모험이 기다리는 시원한 바다 100층짜리 집으로 떠나는 가족뮤지컬 '바다 100층짜리 집'. 이번 무대는 35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100층짜리 집' 시리즈를 전 세계 최초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으로, 특히 다양한 특징의 바다 생물들이 펼치는 역대급 퍼포먼스와 바다 100층을 표현하기 위한 3D 프로젝션 맵핑으로 신비로운 바다 속 세계가 관객들의 눈앞에 펼쳐진다.

• 프로듀서/정용석 • 작, 작사/박수경
 • 작곡, 편곡/오승현 • 연출/조재국

극단 유감 **따따따 따, 따, 따따따**

일 시 | 9월 28일(토)-10월 6일(일) 주말 오후 7:00 연습실 소감
입 장 료 | 전석 7천원
문 의 | 극단 유감 010-9083-9637



산행 도중,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를 맞이한 다섯 사람. 험하고 복잡한 산길에, 옆친데 뒤통격으로 모두 뿔뿔히 흩어진다. 사람들은 각자의 시점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열변을 토하

지만, 오직 개인의 시점으로 지켜본 세상이기애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하늘에 구멍뚫린 듯 비가 온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인가?

이번 작품은 같은 사건을 통해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서로 충돌함에도 결국에는 평소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담담히 보여준다.

- 연출/정유나
- 출연/노민재, 박지현, 이광현, 이해빈, 함지원

가족뮤지컬 **캣프렌즈**

일 시 | 9월 29일 일요일 오후 1:00, 3: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24개월이상 관람가)
문 의 | 쉼조이컬처 070-7807-0701



고양이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이 감긴 감동스런 가족뮤지컬 '캣프렌즈'.

어느 외딴 도시의 유명한 고양이 서커스 예술단. 고약한 잔뜩이 단장의 잔소리에도 대장 고양이 오시를 제외한 모든 고양이들은 서로를 아껴주며 함께 지낸다. 어느 날, 서커스 공연을 하던 중 렉시에게 질투를 느낀 오시는 단순한 고양이 마우를 이용하여 공연을 망치게 되고 이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마우 대신 의리의 고양이 렉스가 모든 책임을 지고 서커스단을 나오게 되는데...

이번 무대는 친구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스토리에 신나는 안무와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더해져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신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발레시어터 **트리플 빌**

일 시 | 9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씨어터링크 지원사업에 선정된 부산발레시어터의 창작발레 '트리플 빌'.

부산발레시어터와 영도문화예술회관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발

레시어터 10주년을 맞아 낭만발레, 클래식발레, 네오클래식발레, 컨템포러리발레 등 시대를 대변하는 발레의 창작과 공연을 통해 현재까지의 발레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현재 또는 미래의 발레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한다.

지난 2014년 설립된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부산발레시어터는 그동안 부산을 기반으로 창작공연부터 클래식 전막발레까지 폭넓은 작품활동과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듀오콘서트 **미클로시 페레니&피닌 콜린스**

일 시 | 9월 4일 수요일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 장 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예술의전당 우수공연을 영상으로 만나는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듀오콘서트 '미클로시 페레니&피닌 콜린스'.

카잘스가 발탁한 미클로시 페레니는 현존하는 최고의 첼리스트 중 한 명으로, 일흔이 넘는 나이에도 섬세하고 온화한 음색과 풍부한 음악성으로 청중을 사로잡고 있다. 피아니스트 피닌 콜린스는 1999년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적인 스타로 주목받은 아일랜드 출신의 연주자이다.

이번 무대는 2022년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에 이은 두 연주자의 두 번째 듀오무대로, 지난해 5월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기념공연으로 열린 바 있다.

9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17일 강의 없음), 13일(금), 27일(금) 오후 2:00, 26일(목) 오후 5: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2일(월) AI시대의 철학 '인공지능(AI)과 사랑할 수 있을까?'

-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과 교수, 사진가)

9일(월) 기술의 발전과 철학의 난제들

-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과교수, 사진가)

전장을 바꾸는 무인기

- 강사/류경모(한화시스템 드론사업총괄 부장)

13일(금), 27일(금)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 23일(월) 오후 7:00 AI시대의 철학 '인공지능(AI)시대의 Confucianism(유교)'

- 강사/최재묵(영남대 철학과 교수, 시인)

26일(목) 하이쿠 산책

30일(월) 2024 찾아가는 달빛극장 '2024부산국제단편영화제 수상작'

- 관객과의 대화/김영광(영화평론가)

2024 상지인문학아카데미 **정두환의 음본세 시즌2**
 엄숙하게 / 레퀴엠(Requiem)의 세계

일 시 | 9월 25일 수요일 오후 6:30
 상지건축 대학의실
문 의 | 상지건축 240-1529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열리는 2024년 상지인문학아카데미 '음악으로 본 세상이야기' 시즌 2.

문화유목민 정두환 지휘자와 함께하는 '음악으로 본 세상 이

야기'로, 베토벤, 슈베르트 등 거장들의 클래식, 엔니오 모리코네,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한국의 전통 악기인 대금 독주, 김광석과 양희은 등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까지 온갖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과 철학, 역사,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음악으로 본 세상이야기' 시즌 2에서는 독주곡을 시작으로 듀오, 트리오, 실내악, 교향곡, 성악 등 음악장르의 다양한 세계를 다루고 있으며, 이번 9월 강좌에서는 '레퀴엠'을 통해 서로를 위로 하고 위안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9월 오페라바وم 해설이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페라바움이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 9월을 맞아 마련한 클래식 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고전·낭만·현대음악을, 금요일에는 낭만 오페라를, 매주 토·일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사전 해설과 감상 후 참여자의 감상소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오페라/푸치니 '토스카'(6일~7일),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13일~14일), 비제 '카르멘'(20일~21일), 조르다노 '안드레아 세니에'(27일~28일)
콘서트/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2일, 7일), 브루크너 교향곡 제5번(9일, 14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교향곡 제7번(16일, 21일),

찰스 아이브스 교향곡 제4번(23일, 28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6번(30일)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연주회 해설감상회&작곡가 탄생지 다큐멘터리 기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 장 료 | 10만원(2개월)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뮤직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음악 감상과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최신 클래식연주회 실황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클래식 입문자도 환영.

프로그램

비발디 '사계' 중 '가을',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천원',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헨델 '왕궁의 불꽃놀이' 모음곡
엔리코 모리코네 영화음악 콘서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국민음악과 특집' 음악영화 '아마데우스' 다시 보기
회원 음악회: 바리톤 한성권, 배용, 테너 장원상, 송은섭, 소프라노 신진범, 김정자 외

제197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가을' 주제 詩낭송회낭송회

일 시 | 9월 21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010-63670-0149

- 출연/신영지 시낭송가, 이태용 시인 외 회원 & 초대시인
- 사회/김병래(전 KBS 아나운서 부장)
- 초청음악가/가수 송진영, 김모화, 클래식기타 고충진

그라운드시소 국내 투어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부산

일 시 | 5월 1일(수)-9월 22일(일)
KT&G상상마당부산
입 장 료 | 균일 1만5천원
문 의 |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

두근두근 도라에몽 IN BUSAN 展

일 시 | 5월 1일(수)-11월 3일(일)
KT&G 영도 피아크 전시장
입 장 료 | 일반 1만8천원, 청소년·어린이 1만5천원
문 의 | 우리공간연구소 1566-1957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한지아 초대 애도의 표상

일 시 | 7월 15일(월)-8월 10일(토)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
일상의 도구 예술의 도구

일 시 | 9월 3일(화)-9월 28일(토)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노가영, 아하, 조수지, 한홍비 등 네 명의 작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상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예술로 표현한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전.

이번 전시에서는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소소한 순간들을 화면에 담아내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지털드로잉, 건물 주인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건물의 역사와 주민의 감정을 담아내는 일러스트, 시간의 흐름 속 누적된 자신의 흔적으로 작가의 내면 세계와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는 한국화, 감정이 서로 교류하고 연결되는 과정을 시각화하는 풍경을 작업하는 추상화를 통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고, 예술을 통해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 특별전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작가전

일 시 | 9월 6일(금)-11월 27일(수)
F1963 석천홀
입 장 료 | 일반 1만8천원, 청소년·어린이 1만5천원
문 의 | ㈜어반플레이 070-8896-5653



세계 10대 박물관 중 하나인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대표 글로벌 순회전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첫 내한전.

야생동물 사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공모전의 수상작 100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로, 프레임에 담긴 자연의 경이로운 아름다움,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기후 온난화와 서식지 축소 등 환경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입장마감 오후 6:30, 월요일 정기 휴무)

September 2024

부산시립예술단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참가

-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MOU 체결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우호협력 1주년 기념공연
- 두바이 부산페스타 참가

부산시립합창단과 국악관현악단이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는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행사에 참가한다. 2024년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브랜드 제고 및 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는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사마르칸트, UAE-두바이 3개국, 4개 자매-우호 협력도시에서 공연 및 교류 활동이 펼쳐진다.

지난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부산-알마티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을 기념해 알마티의 민속악단 '사즈겐 사지(Sazgen-Sazy)' 와 합동공연을 가진데 이어 올해는 9월 22일 부산시립극단과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의 교류를 위한 부산문화회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MOU 체결을 시작으로 합창단과 국악관현악단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은 1932년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설립된 민족극장으로, 한반도 외 활동하는 유일한 국립극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국립 전문 한인극장이다. 1937년 고려인 동포들의 이주로 극장이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전한 바 있고, 1968년 최종적으로 알마티로 이전되면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뮤지컬 코메디 고려극장으로 단체명이 변경되었다. 현재 5세대 예술가와 배우들이 활동 중으로 '사물놀이' 전통악기단, 민속 무용단, 극장의 기본인 연극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시립극단은 고려극장 연극단과 상호 교류를 구상하고 있다.

알마티에서의 MOU 체결에 이어 부산시립합창단은 9월 26일 사마르칸트주립음악극극장에서 부산과 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공연을 펼친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이기선 예술감독을 비롯한 28명의 공연단이 우즈베키스탄 교민, 현지인, 고려인들을 위해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우즈베키스탄 음악을 선곡, 부산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부산시립합창단은 K-컬처의 높아진 위상으로 사마르칸트 공연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3대 도시인 부하라의 부하라국립대학에서 초청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 알마티 공연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우리 문화를 소개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24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행사에서는 두바이 공연팀으로 공연길에 오른다. 국악관현악단은 9월 29일 Dubai Festival City Mall에서 열리는 '부산페스타 in 두바이'에서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립예술단 유튜브 콘텐츠 뮤직토크 아지트 시즌2 제작

9월 27일 오후 7시 유튜브 업로드



부산시립예술단이 지난해 첫선을 보인 뮤직토크 ‘아지트 시즌2’가 9월 27일 유튜브 업로드를 계획으로 8월 26일부터 3일간 촬영에 들어간다.

뮤직토크 ‘아지트’는 공연장에서만 만나온 부산시립예술단이 카페로 연주장소를 옮겨 소그룹으로 연주하고 음악 이야기, 커피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된 영상 콘텐츠로, 지난해 YB의 멤버 박태희 씨의 진행으로 커피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지역 대표 카페 모모스, 블랙업, 코스피어의 바리스타와 부산시립예술단 연주팀이 음악과 어울리는 커피 이야기를 직접 전해준 바 있다. 올해 시즌2는 카페 공간에서 벗어나 금고미술관, 구 백제병원 등 부산의 근·현대 역사가 담긴 특별한 공간으로 장소를 옮겨 부산시립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이 재미있는 토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진행은 지난해에 이어 YB의 베이스리스트 박태희가 출연한다. YB의 최고 히트곡 <나는 나비>의 작사, 작곡자인 박태희는 지난해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과 콜라보 무대를 선보이며 콘텐츠를 유쾌하게 이끌어간 바 있다. 뮤직토크 ‘아지트’는 20~25분 분량으로, 총 6편이 제작되고 시즌2에서는 특별히 참석자 이벤트를 통해 교향악단 목관5중주 팀의 오픈스테이지를 당첨자들과 촬영한다.

회차	송출일정	장소 및 단체
1	9. 27.(금) 19:00	금고미술관, 카페 부사노 & 국악관현악단
2	10. 4.(금) 19:00	구) 시장관사 열린행사장, 모모스 & 교향악단
3	10. 11.(금) 19:00	가덕도 카페 세븐아일랜드 &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4	10. 18.(금) 19:00	구) 백제병원, 카페 브라운핸즈 & 교향악단
5	10. 25.(금) 19:00	카페 원지 & 국악관현악단
6	11. 1.(금) 19:00	구) 시장관사 열린행사장, 모모스 & 교향악단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청년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제1기 공연예술 아카데미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지역 공연 예술산업(연극) 분야의 역량확장을 위한 전문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지역 청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예술 아카데미’를 새롭게 시작한다.

부산시 위탁사업으로 올해 처음 진행하는 ‘공연예술 아카데미 사업’은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심화 교육프로그램과 작품 참여 기회를 제공,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교육과정은 경성대학교 조창주 교수의 ‘샌포드 마이즈너 연기 접근-행동의 사실성’ 연기교육과 함께 부산시립합창단 수석 김나영의 보컬 교육, 부산시립무용단 수석 강모세의 움직임 교육이 총 4주간 진행되고, 부산연극협회 이정남 회장, ‘SKY 캐슬’ 등에서 변화무쌍한 연기를 보여준 부산시립극단 출신의 유성주 배우 특강 등으로 구성, 전공 학생들은 물론 기성 극단의 배우들에게도 특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생들은 4주의 교육과 함께 11월로 예정된 부산시립극단의 ‘스타프로젝트 작품’에 직접 참여하여 부산시립극단 배우들과 호흡하며 객원 배우로 공연에 출연하게 된다.



부산, 사람

최주식 시, 임재천 사진
C2미디어 / 2만 8,000원

제목부터 부산 사람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책이다. 시 50편과 사진 50장으로 부산 그리고 사람을 담은 사사진집이다. 시가 사진을 부르고 사진이 시를 품었다. 시를 쓴 최주식 시인은 “부산 사람도 잘 모르는 부산의 모습을 담아낸 임재천의 사진은, 단지 영감을 주었다는 말로 부족하다”고 말한다. 임재천 사진가는 “공간적으로 부산을 다루고 있지만 이 시들은 하나의 지역 정서를 넘어 이 땅 어느 곳에 사는 누구나에게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의 말처럼 이 책에서 시와 사진은 부산이라는 장소에 대한 기억과 확장, 그 너머를 말한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광안리 바닷가에서 파도에 발을 적시며 노는 두 어린이 뒷모습 사진과 짝을 이룬 시 ‘모래바람’, ‘을숙도’를 노래한 시와 사진. 바다를 물들이는 부산의 야경을 담은 ‘도시의 불빛’, 바다를 내려다보는 황령산 정상이 큰 말쑤를 내리는 것 같은 ‘황령산이 말하기를’. 86번 버스가 지나가는 산복도로에 기대어 살아온 삶을 생각하게 하는 ‘산복도로는 없다’ 등. 시와 사진은 하나로 어우러진다. 부산이 이렇게 좋은 풍경을 간직했구나, 부산의 얼굴이구나 하며 시를 읽고 사진을 보면 부산 사람 삶이 보인다.



하루 5분 미술관

선동기 지음
북피움 / 2만 2,000원

고흐는 화가가 되지 않았다면 경보 선수가 되었을 수도 있다. 고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구필 화랑 영국 지점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고흐는 가끔 영국에 와 있는 여동생을 만나러 가곤 했는데, 런던에서 여동생이 살고 있던 램스게이트까지는 16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였다. 이 길을 고흐는 사흘 만에 주파했다. 하루에 50킬로미터 이상 걷는 셈이다. 못 걸을 것도 아니지만 정말 빠른 걸음이었다. 또한 고흐는 하숙집이 있는 런던 브릭스톤에서 사무실이 있는 코벤트 가든까지도 걸었다. 거리는 6.4킬로미터 정도이다. 고흐는 45분 걸렸다. 고흐는 신발을 주제로 몇 점의 작품도 남겼다. 빠른 걸음을 뒷받침해준 신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지도 모른다. 고흐는 성경 번역도 했던 몹시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고흐의 그림 ‘신발’, ‘성경책이 있는 정물’을 보면 감상이 더 새롭다. ‘그림 읽어주는 남자’로 불리는 미술해설가 선동기가 낯설고 매혹적인 명화의 뒷이야기를 들려준다. 유명한 화가들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 아직 우리에게 낯설지만 매혹적인 그림들이 담고 있는 색다른 이야기 25편이 그림을 바라보는 시선을 풍성하게 해준다.



음악, 밀당의 기술

이미경 지음
곰출판 / 1만 7,000원

“대한민국 짹 짹 짹 짹” 신호만 떨어지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 박수를 칠 수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박’이다. 그룹 퀸의 ‘We will rock yo’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쿵 쿵 딱’을 몇 번 듣고 나면, 몸이 절로 반응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일 때의 쾌감은 본능적이다. 음악이 우리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유는 바로 ‘박’이다. 이 책은 ‘박’을 전면에 내세운다. 저자는 박이 리듬 멜로디 하모니 같은 음악의 다른 요소들과 비교해 중요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음악의 시간적 질서와 공감의 측면에서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박’은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음이 진화시킨 특별한 능력이다. 물론 음악은 소리의 시간적 변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박’을 세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혼자 노래를 흥얼거릴 때나 다른 사람과 앙상블을 즐길 때도 고개를 흔들거나 발끝을 까딱거린다. 저자는 심리학과 진화생물학 등의 다양한 연구와 연결지어,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과 듣고 즐기는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박이 가진 원초적인 힘임을 설명한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 2024 하반기 공연프로그램(7월~12월)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2024. 7-12월

July - 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 '찐팬'을 위한 렉처 콘서트

미술관 옆 콘서트홀

문화 | 중극장 2024. 7. 19.(금), 9. 6.(금)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미술 해설 | 이주현
 - 음악 해설 | 손지현
 - 연주 |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 ※ 7세 이상 관람



모두가 하나되어 떠나는 판타지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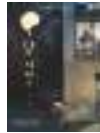
뮤지컬 <달 샤페트>

문화 | 중극장 2024. 8. 17.(토)-18.(일)

11:00am, 2:00pm, 4:00pm

옥토끼석 60,000원 녹대석 40,000원

- 원작 | 백희나
- ※ 24개월 이상 관람



조선 왕실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

국립국악원 <중묘제례악>

문화 | 대극장 2024. 8. 23.(금) 7:30pm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8세 이상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4. 8. 28.(수)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플루트 | 김유빈
 - 피아노 | 김도현
- ※ 7세 이상 관람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여인

오페라 <나비부인>

문화 | 대극장 2024. 8. 31.(토)-9. 1.(일) 5: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작곡 | G. 푸치니
 - 지휘 | 이병욱
 - 연출 | 김숙영
 - 합창·연주 | 2024년 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
- ※ 7세 이상 관람



오전 11시의 브런치 콘서트

2024 마티네 콘서트 III - 모차르트

문화 | 대극장 2024. 9. 27.(금) 11:00am

전석 20,000원

- 지휘 | 정인혁
 - 소프라노 | 박현진, 손주연
 - 바리톤 | 이광근
 - 첼로 | 홍승아
 - 해설 | 손지현
 - 연주 |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 ※ 7세 이상 관람



객석을 전율시키는 건반 위 철학의 힘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챔버홀 2024. 10. 17.(목) 7:30pm

전석 50,000원

※ 7세 이상 관람



10월을 물들이는 낭만적 만남

첵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문화 | 중극장 2024. 10. 19.(토) 5: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문화 | 사랑채극장 2024. 10. 22.(화)-12. 6.(금)

평일 10:30am, 토요일 11:00am, 2:00pm (일·월 휴관)

※ 평일 공연은 단체관람(10인 이상)만 가능

전석 20,000원

※ 36개월 이상 관람



2024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첫 국내 투어

악 판 츠베덴&클라라 주미 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 | 대극장 2024. 11. 2.(토) 5:00pm

VIP석 90,000원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문화 | 대극장 2024. 12. 7.(토) 5: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5세 이상 관람



연말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기 공연!
2024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문화 | 대극장 2024. 12. 15.(일) 4: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국립현대무용단 지역상생 프로젝트
<수선되는 밤 × 정글>
시민 | 대극장 2024. 9. 21.(토) 5:00pm
 R석 4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7세 이상 관람



볼수록 추천하고 싶어지는 단 하나의 두드림!
2024 난타 크리스마스 특별 부산공연
문화 | 중극장 2024. 12. 20.(금)-12. 25.(수)
 평일 7:30pm, 주말 3:00pm, 6:00pm,
 크리스마스 3:00pm
 ※ 36개월 이상 관람



뱀파이어와 인간의 만남을 그린 창작 뮤지컬
뮤지컬 <배니싱>
시민 | 대극장 2024. 10. 19.(토) 2:00pm, 6:00pm
 R석 66,000원 S석 44,000원
 ※ 13세 이상 관람



2024 (제)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4. 12. 24.(화) 7:30pm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 바이올린 | 사라 장
 ※ 7세 이상 관람



2021 제42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
연극 <이단자들>
시민 | 소극장 2024. 10. 25.(금) 7:30pm
 10. 26.(토) 2: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10세 이상 관람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시민 | 소극장 2024. 11. 2.(토) 2:00pm, 6:00pm
 11. 3.(일) 2: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10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동화의 감동과 발레의 우아함이 환상적으로 그려진 명작발레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시민 | 대극장 2024. 7. 12.(금) 7:30pm, 7. 13.(토) 2:0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순수'로 돌아가 '나'를 마주하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2024. 11. 22.(금) 7:30pm
 VIP석 80,000원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독보적 감성의 로이킴과 행복을 노래하는 소란의 So Romantic한 만남
로이킴&소란
시민 | 대극장 2024. 7. 27.(토) 5:00pm
 VIP석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7세 이상 관람



국립정동극장 연극시리즈
연극 <더 드레서>
시민 | 대극장 2024. 12. 6.(금) 7:30pm
 12. 7.(토) 2:00pm
 R석 55,000원 S석 33,000원
 ※ 11세 이상 관람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현악 5중주
유렵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시민 | 대극장 2024. 8. 17.(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20,000원
 ※ 7세 이상 관람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인 수준높은 실내악 공연
**스타즈 온 스테이지 - 리처드 용재 오닐,
 양인모, 장유진, 문태국, 김길우**
시민 | 대극장 2024. 12. 27.(금) 7:3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7세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4. 8. 23(금) 9:00pm

- 지휘 | 백승현
- 반도네온 | 고상지



제12대 홍석원 예술감독 취임 기념

제612회 정기연주회

(2024 제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Prélude

문화 | 대극장 2024. 9. 6(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알렉산더 코르산티아



제613회 정기연주회

브루크너 탄생 200주년 기념

Romantic

문화 | 대극장 2024. 10. 1(화) 7:3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김재영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4 <부산시향의 줌인 2>

문화 | 챔버홀 2024. 10. 11(금) 7:30pm

- 첼로 | 이일세
- 피아노 | 피터 오브차로프



기획음악회

제8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4. 10. 25(금) 7:30pm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이연서
- 바이올린 | 권세훈
- 호른 | 송지호
- 트럼펫 | 백도영
- 바이올린 | 황아영



제614회 정기연주회

England

문화 | 대극장 2024. 11. 7(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첼로 | 이상은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 5 <부산시향의 줌인 3>

문화 | 챔버홀 2024. 11. 26(화) 7:30pm

- 더블베이스 | 배기태



기획음악회

심야음악회 2

문화 | 중극장 2024. 12. 6(금) 9:00pm

- 지휘 | 백승현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3

문화 | 대극장 2024. 12. 19(목) 7:30pm

- 지휘 | 홍석원



제615회 정기연주회

BPO's Mahler Series

Auferstehung

문화 | 대극장 2024. 12. 20(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소프라노 | 박소영
- 메조소프라노 | 양송미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5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4. 10. 29(화)-10. 31(목) 7:00pm

- 지휘 | 이기선



특별연주회

현대합창 시리즈 5 <현대합창의 밤>

문화 | 대극장 2024. 11. 1(금) 7:30pm

- 지휘 | 이기선



제194회 정기연주회

현대 오라토리오

<The Ordering of Moses>

문화 | 대극장 2024. 12. 5(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연 | 박은주(소프라노), 김효중(테너), 장정권(카운터 테너), 사무엘 윤(베이스 바리톤)
- 연주 | United Korean Orchestra



부산시립무용단

제90회 정기공연
춤 본색

문화 | 대극장 2024. 10. 25(금) 7:30pm
26(토) 3:00pm
1부 옹호상박 / 2부 청아정아
• 안무 | 이정윤



특별공연

안무가육성프로젝트 <홀로홀출>

문화 | 중극장 2024. 12. 13(금) 7:30pm
14(토) 3:00pm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6회 정기연주회
청춘 歌樂

문화 | 중극장 2024. 9. 7(토) 5:00pm
• 지휘 | 이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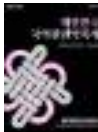
제227회 정기연주회
우리 음악의 거장 [박범훈]

문화 | 대극장 2024. 10. 18(금) 7:30pm
• 객원지휘 | 박범훈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세종문화회관 | M씨어터 2024. 10. 25(금) 7:30pm
• 지휘 | 이동훈



제49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4. 11. 26(화) 7:30pm
• 지휘 | 김경수



제228회 정기연주회
2024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4. 12. 18(수) 7:30pm
• 지휘 | 이동훈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

문화 | 사랑채극장 2024. 9. 7(토)-10. 12(토)
화-금요일 11:30am(단체공연, 공휴일 제외)
9. 7(토), 9. 21(토), 9. 28(토), 10. 3(목), 10. 5(토), 10. 9(수)
10. 12(토) 11:00am, 2:00pm(일반공연)
• 대본 | 김영화 • 연출 | 김지용



제7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베르톨트 브레히트
코카서스의 백묵원

시민 | 소극장 2024. 11. 15(금) 7:30pm, 11. 16(토) 5:00pm
• 원작 | 베르톨트 브레히트
• 객원연출 | 강태욱



제7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베르톨트 브레히트
사천의 선인

시민 | 소극장 2024. 11. 22(금) 7:30pm, 11. 23(토) 5:00pm
• 원작 | 베르톨트 브레히트
• 객원연출 | 양지웅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4회 정기연주회
오르간

문화 | 대극장 2024. 9. 10(화) 7:30pm
• 지휘 | 백승현
• 협연 | 하유나(바이올린), 허예은(첼로), 박준호(오르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4. 10. 5(토) 5:00pm



제75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4. 12. 10(화) 7:30pm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4회 정기연주회
천사들의 노래

문화 | 중극장 2024. 9. 7(토) 5:00pm
• 지휘 | 천경필
• 특별출연 | 박은주(소프라노), 수연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 김태경)



특별연주회
제35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4. 11. 8(금)-9(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5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파티

문화 | 대극장 2024. 12. 14(토) 5:00pm
• 지휘 | 천경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MEMBERSHIP GUIDE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공연 관람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수(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수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 (20%), 50명 이상 (30%)

VIP



-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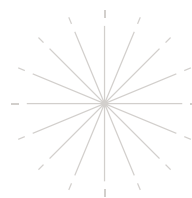
가입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연극 <갈림길에 선 여자> **종료**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II - 푸치니 **종료**

2024년 6월 28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루돌프 부흐빈더&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종료**

2024년 6월 29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미술관 옆 콘서트홀

2024년 7월 19일(금) **종료**
9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유럽의 대표 재즈현악5중주 <볼로시> **종료**

2024년 8월 17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종료**

2024년 8월 23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4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오페라 <나비부인> 종료

2024년 8월 31일(토)-9월 1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40매)

국립현대무용단 <수선되는 밤 × 정글>

2024년 9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2024 마티네 콘서트 III - 모차르트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뮤지컬 <배니싱> 종료

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2:00,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연극 <이단자들>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 7:30, 10월 2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4년 10월 17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20매)

첵 베이커,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종료

2024년 10월 19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뮤지컬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종료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2:00, 오후 6:00
11월 3일(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압 판 츠베덴&클라라 주미 강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종료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4년 11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연극 <더 드레서> 종료

2024년 12월 6일(금) 오후 7:30, 12월 7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종료

2024년 12월 15일(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재)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종료**

2024년 12월 24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스타즈 온 스테이지

-리처드 용재 오닐, 양인모, 장유진, 문태국, 김길우 종료

2024년 12월 2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은누리약국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은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문홍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즈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애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임은자
- 정명선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부산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Green Harmony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 캠페인

Green Harmony에 화음을 쌓아주세요!!

개개인의 사소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경을 위해 만들어가는 Green Harmony
매월 캠페인에 참여하여 지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캠페인 참여 주제

9월 푸른 하늘의 날

대기오염 저감활동 > 건기 인증 게시물
파란하늘 그리기 캠페인 > 아이 참여 장려

10월 산의 날

클린산행 > 플로깅 인증 게시물

참여기간 매월 5일~30일

참여방법 개인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에 캠페인 인증 게시물 업로드

* 업로드 시 #부산문화회관환경캠페인 #그린하모니 #GreenHarmony
#기후위기대응캠페인 해시태그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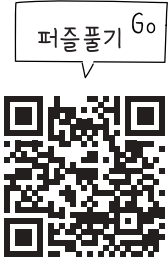


* 월별로 캠페인에 참여하신 시민들 중 무작위로 추첨(15명)하여 커피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 ★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홍보 마케팅팀(607-6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 참여기간 : 2024. 8. 26.(월)~9. 18.(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4. 9. 24.(화)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4년 8월호 낱말퍼즐 정답 및 당첨자

- 당첨자**
- | | |
|---------------|---------------|
| 010-****-6867 | 010-****-4565 |
| 010-****-1902 | 010-****-2494 |
| 010-****-7745 | |
-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재)부산문화회관



@배시시TV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당일 \$100 이상 구매시, 1만원 면세포인트 증정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사은정책 적용
증정 기간 : 2024. 9. 30까지
증정 장소 : 부산점 고객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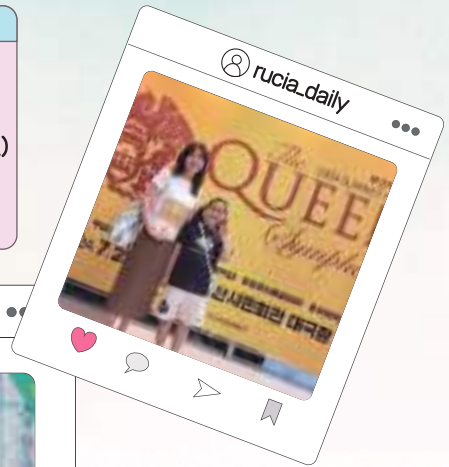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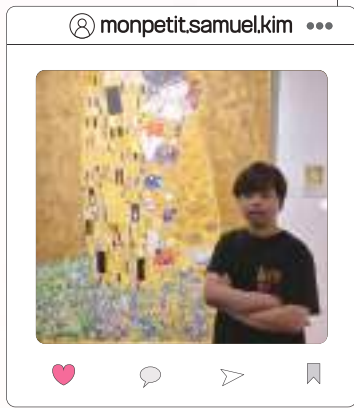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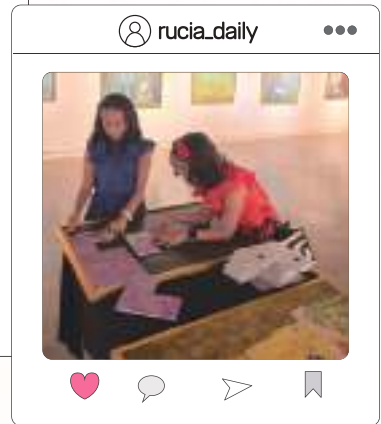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9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_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_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_10월호



jimii_jimii.W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 너의 뜻대로

2024.9.7(토) ~ 10.12(토)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일반공연 2024.9.7(토)~10.12(토), 공휴일, 토요일 11:00, 14:00

단체공연 2024.9.10(화)~10.11(금) 매주 화~금 10:30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051-607-6000 ARS 1번 **티켓** 전석 12,000원 **관람연령** 전연령 관람가(미취학 아동 부모 동반)

대본/작사 김영화 | 음악감독/작곡 이영재 | 작곡 정유진·유인영 | 연출 김지용 | 무대디자인 황지선 | 무대제작 진승휘 | 조명디자인 조세현 | 의상디자인 김현진 | 분장디자인 이지원
음향디자인 이호원 | 영상제작 이병길 | 영상오퍼레이터 이영준 | 조명프로그래머 강진구 | 조명오퍼레이터 최유경 | 조명팀 이영준·이죽·최성빈 | 음향오퍼레이터 차규리
RF엔지니어 배진경 | 음악코치 김현정 | 노래지도 이태훈 | 분장팀 유혜미·강예지 | 무대제작팀 장재현·이주한·김주환 | 무대감독 이현우 | 기획/홍보 백경옥·박지현·정소진·공민서·김보민
출연배우 이현주·황창기·김은화·이혁우·오희경·염지선·채민수·서보가·이태상·조정우·박규한·김성열·윤영식·이수현·양희진·전용균·이소희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렉처콘서트



미술관 옆 콘서트홀

헤어짐과 그리움

MUSIC & ART LECTURE CONCERT



2024. 09. 06(금) 19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미술해설 이주현



음악해설 손지현



연주 무지카비바 앙상블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 후원 | SK 증권

| 티켓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예매·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

Busan
is good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영화평론가

이동진

9.28.(토) 15:00

영화 연기란 무엇인가

공연 디 켈리스텐 앙상블

2024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3만원 | S석 2만원

예매 및 문의

www.bscc.or.kr 051-607-6000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주최 | 주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2024.
7.2.tue —
10.27.sun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Claude Monet, The Spring, 1875, Oil on canvas, Johannesburg Art Gallery,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monet to warhol